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1920년대 잡지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고 나 경

2023년 8월

# 1920년대 잡지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지도교수 최 대 희

고 나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고나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현 정   
위 원 배 영 훈   
위 원 최 대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5월

A Study on NP Embedded Sentence in  
1920s magazine

Ko Na-kyung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Dae 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3. 5.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Choi, Dae Hee,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1920년대 잡지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고 나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대 희

이 연구는 1920년에 간행된 3종의 잡지인 『개벽』, 『별건곤』, 『삼천리』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공시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1920년대 이전과 이후의 명사구 내포문과도 비교하였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20년대 잡지에서 명사화 구성은 기능, 제약, 분포와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기능 면에서 1920년대도 명사화 어미 ‘-(으)ㄴ’, ‘-기’나 ‘-ㄴ 것’ 구조로 나타난 명사화 구성에 격조사 혹은 보조사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기능했다. 이때, ‘-기’ 명사화 구성은 주어,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수의적으로 생략되어 나타나거나, 어간말음 ‘ㅎ’ 혹은 ‘-하다’류 용언이 명사화 어미 ‘-기’와 결합할 경우 축약된 ‘-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1920년대 명사화 구성의 제약 양상은 상위문장 서술어 결합, 시제어미 결합, 높임법 결합 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ㄴ 것’ 명사화 구성은 관형화 구성의 구조를 취하여, 상위문장 서술어 결합에서 제약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20년대 명사화 구성의 분포와 변천을 살펴보았다. 원래 명사화 구성은 선어말어미 ‘-오/우-’의 규칙적인 결합을 기반으로 ‘-(으)ㄴ’이 가장 우세했으나, 16세기부터 선어말어미 ‘-오/우-’가 소멸하면서 ‘-기’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17세기에는 ‘-ㄴ 것’ 구조가 등장하여 명사화 구성으로 기능하며, ‘-(으)ㄴ’이 더욱 축소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1920년대 잡지에서 1925년부터 ‘-기’와 ‘-ㄴ 것’의 분포가 ‘-(으)ㄴ’을 뛰어넘으며 나타났다. 이때, ‘-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빈번하게 나타났고, ‘-ㄴ 것’은 ‘-(으)ㄴ’이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는 반비례 형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ㄴ 것’이 ‘-(으)ㄴ’을 대체하며 분포를 확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20년대 잡지에서 관형화 구성은 유형, 제약, 변천을 살펴보았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의 관계에 따라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나누는데, 1920년대 잡지에서 관형화 구성 또한 관형화 어미나 내포문 명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관형화 어미에 관련한 제약 양상은 시제어미 결합, 높임법 결합, 내포문 명사에 따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형화 구성은 주체·대상법이 소멸하고, 관형화 어미 ‘-ㄴ’과 ‘-ㄴ’로 나타나며, ‘관형절+내포문 명사’ 구조가 보편화 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는데, 1920년대 관형화 구성 또한 이러한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관형화 구성은 현대국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1920년대, 잡지, 명사화 구성, 관형화 구성, 형태적 특징, 통사적 특징

# 목 차

<국문초록>

<b>1. 서론</b>	<b>1</b>
1.1. 연구 목적	1
1.2. 선행연구 검토	3
1.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7
<b>2. 기초적 논의</b>	<b>12</b>
2.1. 명사구 내포문 이론	12
2.2. 1920년대 잡지의 목록	24
<b>3. 1920년대 잡지의 명사화 구성</b>	<b>27</b>
3.1. ‘-(으)口’ 명사화 구성	27
3.2. ‘-기’ 명사화 구성	34
3.3. ‘-ㄴ 것’ 명사화 구성	45
3.4. 명사화 구성의 종합적 검토	50
<b>4. 1920년대 잡지의 관형화 구성</b>	<b>61</b>
4.1. ‘-ㄴ’ 관형화 구성	61
4.2. ‘-르’ 관형화 구성	75
4.3. 관형화 구성의 종합적 검토	85

5. 결 론 .....	90
<참고문헌> .....	93
<Abstract> .....	98



## <표> 목차

<표1> 연구 대상 잡지 정리 .....	9
<표2> 1920년대 잡지 연구 대상 목록 .....	10
<표3-1> 1920년대 잡지 목록① .....	24
<표3-2> 1920년대 잡지 목록② .....	25
<표3-3> 1920년대 잡지 목록③ .....	26
<표4> 명사화 구성 분포 『개벽』 .....	52
<표5> 명사화 구성 분포 『별건곤』 .....	53
<표6> 명사화 구성 분포 『삼천리』 .....	53
<표7> 명사화 구성 분포 종합 .....	54

## <그림> 목차

<그림1> 『개벽』 1호 명사화 구성 비율 .....	55
<그림2> 『개벽』 62호 명사화 구성 비율 .....	56
<그림3> 『별건곤』 24호 명사화 구성 비율 .....	56
<그림4> 1920년대 명사화 구성 비율 종합 .....	57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1920년대에 간행된 잡지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20년대는 시간적으로 보면 현대국어로 인식되어, 근대국어나 지금의 현대국어에 비해 연구의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었던 이 시기의 명사구 내포문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명사화 구성은 주로 명사형에서의 분포와 양상, 제약, 변천을 살펴보고, 두 어미 ‘-(으)ㄴ’과 ‘-기’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에 명사화 어미로 실현되는 명사화 구성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관점에서 명사화 구성인 ‘-ㄴ 것’ 명사화 구성을 추가하여 분석한다. ‘-ㄴ 것’ 명사화 구성도 분포와 양상, 제약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관형화 구성에서의 명사구 내포문은 관형화 어미 ‘-ㄴ’, ‘-ㄴ’과 자립·의존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문을 추출·분석하여 형태, 제약,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번 명사구 내포문 연구는 20세기 중 1920년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시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1920년대 이전, 이후 국어와의 차이점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명사구 내포문의 변천 양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를 포함한 시기인 20세기 초는 우리나라의 1896년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하여 현대국어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같은 현대국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인 지금의 국어와 1920년대의 국어만을 비교하여도 그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1) 開闢 雜誌가 나게됨이 어찌 偶然이라 (사고·편집후기②20.06.개벽1)

개벽 잡지가 나게 된 것이 어찌 우연이라.

위의 예문 (1)은 1920년 창간되어 발행된 개벽사의 잡지 『개벽』 1호의 창간사를 인용한 것이다. 이번 연구의 주제인 명사구 내포문을 포함한 문장인데, 이를 현대어로 해석한다면 명사형 어미 ‘-(으)ㄴ’보다는 관형형 어미 ‘-ㄴ’ 과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형태가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는 명사구 내포문의 한 영역인 명사화 구성에서 ‘-ㄴ 것’ 구성에 해당한다. 20세기 초의 국어는 현대국어에 속한다고 뭉뚱그리기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잡지, 그 중에서도 1920년대 간행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는 조선인의 단독 잡지 창간이 허가되어, 민족의 계몽과 종교 활동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잡지들이 간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배포된 1920년대 잡지만 해도 20세기 통틀어 확인된 잡지의 384종 중 131종<sup>1)</sup>이다. 삼분의 일 가량이 이것이다. 또한, 190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의 명사구 내포문의 연구가 잡지를 대상으로 해서는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1920년대는 2020년대가 된 지금과는 100년이라는 시기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20세기 초의 것이다. 1920년대 잡지는 그 시대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접하게 되는 간행물 중 하나이며, 무수히 간행되어 종류가 풍부하다. 그리고 이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연구 대상이 되었던 자료들과 다른 자료를 필요로 하였다. 20세기 초 명사구 내포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른 대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부합하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초에 간행된 잡지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을 대상으로 형태·통사적 특성을 공시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전 국어와 현대 국어의 대비로 명사구 내포문의 변천 양상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5, pp. 4-17.

이 연구에서는 도서에 수록된 1920년부터 1929년까지 간행된 잡지를 모두 포함하여 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문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모든 잡지를 최대한 담으려 했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나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 1.2. 선행연구 검토

명사구 내포문은 명사구를 통해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관할하는 구성으로,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관할할 때 관여하는 어미, 즉 내포문 어미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명사화 구성에서의 어미는 ‘-(으)ㄴ’, ‘-기’가 있다. 여기에 명사화 구성 ‘-ㄴ 것’을 추가할 수 있다. ‘-ㄴ 것’의 경우 본래의 형태는 관형화 구성과 같지만, 형태론적 관점에서가 아닌 통어론적 관점에서 명사화 구성으로 분류된다. 관형화 구성에서는 관형화 어미로 ‘-ㄴ’과 ‘-ㄴ’을 들 수 있다. 이들 어미로 이루어진 관형절에 내포문 명사가 붙어 명사구를 구성하게 된다.

명사구 내포문 중 하나인 명사화 구성은 주로 명사형 어미 ‘-(으)ㄴ’과 ‘-기’가 있다. 거기에 통사론적 구성으로 ‘-ㄴ 것’을 추가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명사화 구성을 실현하는 요소로서 같은 기능을 취할 수도 있지만, 대치되지 않으며, 시대별로 출현하는 빈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관형화 구성은 변형생성문법의 등장으로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의 의미 관계에 따라 보문화와 관계화로 나누어지며, 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명사구 내포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시적 연구는 각 시대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형태, 기능 등을 주로 살펴보고, 통시적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명사구 내포문의 형태, 분포 등의 변화 양상을 주로 살핀다.

### (1) 공시적 연구

먼저, 명사구 내포문의 공시적 연구에서 명사화 구성을 대상으로 한 권재일(1982), 홍종선(1983), 서은아(1997), 최대희(2010) 등이 있고, 관형화 구성 연구에는 우형식(1987) 등이 있다.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을 모두 포괄한 연구에는 김현숙(2019) 등이 있다.

명사화 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세기 초 이전의 중세국어나 현대국어

를 주로 대상으로 삼았다.

권재일(1982)은 현대국어의 명사화 어미 ‘-(으)ㄴ’, ‘-기’를 대상으로 상위문장 서술어 제약의 규칙을 분석했다. ‘-(으)ㄴ’은 주로 자동사나 자각동사와 ‘-기’는 가능성을 뜻하는 동사나 관형적 표현과 결합하는 상위문장 서술어 제약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홍종선(1983)은 언어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으)ㄴ’, ‘-기’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규정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으)ㄴ’은 현재라는 기저 의미에서 출발하여, 순간성·당시성·현장성의 의미를 가지고 그와 관련한 동사와 결합한다. ‘-기’는 동작이나 상태 그 자체에 대한 의미특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내용이나 일반적인 인식에 관련한 서술어와 결합한다.

서은아(1997)는 명사화 어미 ‘-(으)ㄴ’, ‘-기’의 의미적 특성과 제약, ‘-ㄴ 것’ 구성과의 대치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명사화 어미 ‘-(으)ㄴ’은 ‘사실인식’, 즉 ‘현재에 일어난 것 ‘일이 일어난 그 당시’의 의미를 가지고, ‘-기’는 ‘행동성’의 뜻을 지녔다. ‘-ㄴ 것’은 ‘사실이나 행위의 구체성’을 의미한다. 또한, ‘-(으)ㄴ’, ‘-기’, ‘-ㄴ 것’ 구성이 서로 어떻게 대치되어 변해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 중에서 ‘-ㄴ 것’은 행위의 구체성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명사화 어미 ‘-(으)ㄴ’, ‘-기’를 대체하며 세력을 넓혀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ㄴ 것’ 구성의 대치 현상에 대해서 최대회(2010)는 ‘-ㄴ 것’ 명사화 구성이 등장하기 시작한 17세기를 대상으로 이름마디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명사화 구성의 종류에 대하여 ‘-(으)ㄴ’과 ‘-기’만을 주목한 것에서 ‘-ㄴ 것’ 구성을 추가함과 더불어, ‘-ㄴ 것’ 구성이 어디서, 왜 나타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관형화 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대국어의 관형화 구성 예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관형화 구성의 구조를 분석하는 등의 연구가 주류이다.

우형식(1987)은 관형화 구성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통한 분류작업을 했다. 관계화와 보문화가 그것으로, 관형절 안 성분이 핵심명사로 빠져나왔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이처럼, 위 연구는 관형화 구성의 체계를 확실히

하고, 각 구성의 특징, 차이, 공통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다.

명사구 내포문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 중 명사화와 관형화를 모두 포괄하여 진행된 연구 중에서 20세기 초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연구는 김현숙(2019)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명사구 내포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10년대부터 간행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문들을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분포, 제약, 특성을 분석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통시적인 측면에서 명사구 내포문의 양상을 정리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분석이 1910년에 그쳐 20년대까지는 연구가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위처럼 20세기 초 개화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성희(1994), 권재일(1995), 호정은(1999) 등도 있다. 전성희(1994)와 호정은(1999)은 각각 신소설과 독립신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명사화 구성에 대한 분포, 제약, 형태·통사적 특징을 파악했다. 그 당시 쓰인 자료를 가지고 개화기 국어의 모습을 규명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 중에서 권재일(1995)은 이 시기 명사화 구성의 제약 등을 정리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명사화 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형화 구성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연구가 덜 진행된 개화기 국어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 분석을 진행했다는 부분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2) 통시적 연구

명사구 내포문의 통시적 연구는 주로 명사화 구성의 어미를 대상으로 한다. 그 연구에는 채완(1979), 홍종선(1983), 서은아(2001), 양정호(2005), 최대회(2014), 정수현(2006) 등이 있다. 이들은 특정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을 추출, 통계와 분석으로 연구할 시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형화 구성에 관해서는 공시적 연구를 종합하여 역사적 변천을 살펴본 허원욱(1992, 1995, 1997, 2005, 2014, 2017)도 존재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으)ㄴ’이 15세

기에 우세했다가 16세기 이후부터 ‘-기’가 등장,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17세기 이후부터는 ‘-(으)ㄴ’의 쓰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에 비해 ‘-기’의 비중은 확대되었다.

이들 중 최대회(2014)는 15세기에서 21세기까지의 문헌을 대상으로 명사화 구성 어미 분포를 살펴보았다. 명사화 구성 ‘-(으)ㄴ’, ‘-기’의 양상은 다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본 ‘-ㄴ 것’은 ‘-(으)ㄴ’, ‘-기’가 증감하는 그 사이에 점차 명사화 구성으로 기능하며 ‘-(으)ㄴ’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사화 구성의 기본 ‘-(으)ㄴ’, ‘-기’를 포함해 통어론적 구성 ‘-ㄴ 것’을 포함해 명사화 구성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명사화 구성의 형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 정수현(2006)의 연구도 있다. 정수현(2006)은 서로 다른 시기에 간행된 『노걸대』를 대상으로 했다. 『노걸대』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시기별로 간행되는데, 시기별로 같은 문장에서 다른 명사화 구성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명사화 구성의 형태적 변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형화 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허원욱(1992, 1995, 1997, 2005, 2014, 2017)은 매김마디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시기별로 나뉜 연구를 종합하여 때때김법의 통시적 관측 또한 가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들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18세기와 19세기의 매김마디를 연구한 허원욱(2014, 2017)이다. 여기에서 ㄴ 것 구성의 명사적 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 ‘-ㄴ 것’은 매김마디이지만 17세기 이후부터 명사적 용법에서도 활용되는 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명사화 구성에서는 각 구성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밝히는 공시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명사화 구성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그 구문의 분포 및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도 20세기 초가 아닌 그 이전의 국어나 현대국어에서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관형화 구성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역시 그의 유형적 체계를 확립하고 구성에서 드러나는 문법 현상을 파악하는 공시적 연구로 치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구들을 통해 통시적 변천에 대한 양상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명사구 내포문은 개화기 국어에 관심을 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수가 적고, 주로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 둘 중 하나의 대상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 또한 1910년대의 자료만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어 20세기 초 모든 시기를 살펴본 것은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명사화 구성 연구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명사화 구성인 ‘-(으)ㄴ’, ‘-기’만을 중심으로 하였다. 하지만 명사화 구성의 양상에 있어서 ‘-(으)ㄴ’, ‘-기’ 뿐만 아니라 ‘-ㄴ 것’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ㄴ 것’도 ‘-(으)ㄴ’, ‘-기’의 자리를 대신하며 명사구 내포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20세기 초 중에서도 1920년대의 잡지 자료를 통해 당대의 명사구 내포문 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20세기 초 명사구 내포문의 특성을 연계하여 파악해 나갈 것이다. 이때 ‘-ㄴ 것’ 명사화 구성을 추가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 1.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1.3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진행 절차와 연구 대상인 1920년대 잡지 세종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연구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 1.3.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1920년대 잡지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추출과 분석을 진행한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이 될 잡지를 선정한다. 기준은 세 가지이다. 20세기 초인 1920년대 발행된 잡지일 것,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것,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할 만큼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1920년대 잡지를 선정하고, 대상 잡지에서 분석할 권수를 선정할 때에는 적어도 5개월에서 1년의 간격을 두어 1920년대를 두루 살펴볼 것이다.



분석은 자료에서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을 나누어 추출한 다음, 명사화 구성은 다시 ‘-(으)ㅁ, -기, -ㄴ 것’ 명사화 구성으로 나누고, 관형화 구성은 ‘-ㄴ, -ㄹ’ 관형화 구성으로 나누어 형태·통사적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명사화 구성의 형태·통사적 특징은 기능, 제약,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능으로는 세 명사화 구성이 조사에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로 나타나는 예를 살펴본다. 제약은 상위문장 서술어, 시제어미, 높임법을 살펴보되,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경우 관형화 구성의 구조로 상위 문장 서술어에는 제약을 받지 않기에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정리에서는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세 명사화 구성의 분포를 수치화하여 20세기 초 명사화 구성의 분포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명사화 구성의 변천양상을 정리한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내포문 명사’의 조합이 명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관형절은 내포문 명사의 수식, 즉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기능은 살펴보지 않는다. 대신,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의 관계에 따른 관계화와 보문화를 중심으로 관형화 구성의 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제약은 시제어미, 높임법, 내포문 명사를 중심으로 한다. 1920년대 관형화 구성의 양상을 정리함과 동시에 관형화 구성의 변천을 살펴보며 관형화 구성의 모습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 1.3.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1920년대 간행된 종합 잡지의 명사구 내포문이다. 명사구 내포문을 추출할 자료로는 1920년대 잡지 『개벽』, 『별건곤』, 『삼천리』를 채택한다. 이를 중심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분석<sup>2)</sup>을 진행할 것이다.

1920년대를 택한 것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잡지들이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활발히 창간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는 한국인의 단독적인 잡지 창간이 허가되어, 민족의 계몽과 종교 활동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잡지들이 간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배포된 1920년대 잡지의 종류만 해도 20세기 통틀어 확인된 잡지의 384종 중 131종<sup>3)</sup>이다. 삼분의 일 가량이 것이다.

2) 명사구 내포문의 분석. 연구는 최대희(2010)와 김현숙(2019)의 부분을 따랐다. ‘ctrl+f’ 기능을 사용하여 명사구 내포문을 추출, 분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과정을 따르고자 했다.

30년대에는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수많은 언론들의 신문·잡지들이 검열되고 폐간 당하기에 이르러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상황이 완화 된 것은 해방 이후 1945년이었는데, 이때도 많은 잡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초 명사구 내포문을 대상으로 하기에, 1930년대부터 간행된 잡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시기에 벗어나게 된다.

『개벽』, 『별건곤』, 『삼천리』는 1920년대에 간행되어 길게는 1940년대까지 자료가 남아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sup>4)</sup>를 통해 DB화 되어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대상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1> 연구대상 잡지 정리

이름	발행기간	권수 <sup>5)</sup>	특성
개벽	1920. 06. 25. -1935. 03. 01. (1926. 08. 01.)	72권	-A5판. 160쪽 내외 / 월간종합잡지 -26년도 강제 폐간되었으며, 1934년 개벽신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sup>6)</sup> -종교·사상·정치·경제·산업·역사·천문·지리·문학·미술·음악·제도·기술·풍속·풍물·인물·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별건곤	1926. 11. 01. -1934. 06. 01. (1929. 12. 01.)	24권	-A5판. 150쪽 내외 / 대중잡지 -1926년 8월 『개벽』이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폐간 당하자 그 대신 내놓은 잡지로, 그 성격을 달리하여 취미와 실익을 위주 <sup>7)</sup> 로 했다.
삼천리	1929. 06. 12. -1942. 01. 01. (1929. 11. 13.)	3권	-B5판. 50쪽 내외 / 대중잡지 -취미중심의 오락지로 『별건곤』과 쌍벽을 이루고, 14년 동안 총 152호를 냄으로써 일제 때 나온 잡지 중 가장 장수한 잡지 <sup>8)</sup> 이다.

3)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5, pp. 4-17. 에 수록된 잡지 목록을 참고하였다. 도서에 수록된 1920년부터 1929년대까지 간행된 잡지를 모두 포함하여 현황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모든 잡지를 최대한 담으려 했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나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국근현대잡지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마지막 접속일 2023년 2월 28일. 을 활용하여 잡지 내 명사구 내포문의 추출 및 분석을 진행했다.

5) 해당 권수는 1920년대에 발행된 것만을 대상으로 센 것이다. 이들 잡지는 1920년대 이후로도 몇

(2) 좀 더 노력한 자취가 잇는 글을 보내시며 실제와 실상에 의거한 씨가 들은 것을 보내시오(사고·편집후기③22.12.개벽30<sup>9)</sup>)

(2)의 사고·편집후기에서 언급되었듯, 잡지에는 대중의 글이 수록되기도 했다. 1920년대 폭발적인 잡지의 성장이 대중들에게는 글쓰기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논설, 기행 등 잡기(雜記)들이 투고되었다. 이 원고들의 주인은 평범한 인간 군상이다. 주부나 직업인 여성, 직업인 남성 등 다양한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에 잡지는 그 시대의 언어를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당대의 언어적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잡지는 수록된 문학 작품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론 그 작품들은 어떤 작가나 시대, 인간상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의 수록 자료가 아닌, 한 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그 시각을 달리 해보고자 한다.

<표2> 1920년대 잡지 연구 대상 목록

잡지명	사용 권수	발행 연도 / 권
개벽	총 7권	1920.06.25.개벽1
		1921.12.01.개벽18
		1922.12.01.개벽30
		1923.12.01.개벽42
		1924.12.01.개벽54
		1925.08.01.개벽62
		1926.08.01.개벽72
별건곤	총 4권	1926.11.01.별건곤1
		1927.12.20.별건곤10
		1928.12.01.별건곤16
		1929.12.01.별건곤24
삼천리	총 2권	1929.06.12.삼천리1
		1929.11.13.삼천리3

차례 출간되었으나, 이 논문에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6)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5, p. 15.

7) 최덕교, 위의 책, p. 32.

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5, p. 156.

9) 잡지마다 수록된 기사의 유형이 겹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 잡지 내에서 유형별로 순서를 부여 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앞으로 인용할 예문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위에 인용의 경우 1922년 12월 발행 개벽30호에 수록된 세 번째 사고·편집후기이다. 잡지에서 인용된 예 문들에는 일을 제외한 (기사 종류, 년, 월, 권)의 순으로 표기한다.

1920년대 잡지 중에서 선별한 세종의 잡지 『개벽』, 『별건곤』, 『삼천리』에서 사용할 총 13권의 목록을 정리한 표이다. 1920년대 발행된 것을 중심으로 일 년씩의 간격을 두었다<sup>10)</sup>. 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

10) 『삼천리』는 1929년에 간행된 3권만이 20년대에 해당했다. 하지만, 1호와 3호의 발행 시기가 오 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밀한 연구를 위해 오 개월의 간격을 둔 두 권을 채택하였다.

## 2. 기초적 논의

### 2.1. 명사구 내포문 이론

명사구 내포문은 복합문 중 하나로,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을 내포한 문장 유형이다. 이는 크게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명사화 구성은 하위문장이 ‘명사화 어미’와 결합하여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명사화 어미에는 ‘-(으)ㄴ’과 ‘-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통어론적 관점으로 ‘-ㄴ 것’ 명사화 구성을 추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형화 구성은 ‘관형화 어미’가 결합한 관형절과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성에 관여하는 관형화 어미 ‘-ㄴ’과 ‘-르’에 따라, ‘-ㄴ’ 관형화 구성과 ‘-르’ 관형화 구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명사구 내포문의 기능, 유형, 제약을 현대국어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제약의 경우, 명사화 구성에서 상위문장 서술어, 시제어미, 높임법에 대한 제약을 살펴보고, 관형화 구성에서 시제어미, 높임법, 내포문 명사에 대한 제약을 알아본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1920년대 잡지에서 명사구 내포문을 분석할 것이다.

#### 2.1.1. 명사화 구성

명사화 구성은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이 대표적이며, 추가로 통어론적 관점에서 ‘-ㄴ 것’ 명사화 구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관여하는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관형화 어미 ‘-ㄴ’과 의존명사 ‘것’의 결합이 고정되어 있다. 아래는 세 명사화 구성의 예문을 나타낸 것이다.

(3)ㄱ. 꽃향기에 봄이 왔음이 실감났다.

-> 꽃향기에 [봄이 왔다 + -(으)ㄴ]이 실감났다.

ㄴ. 따뜻한 날에 산책하기를 즐긴다.

-> 따뜻한 날에 [(내가) 산책하다 + -기]를 즐긴다.

ㄷ. 그는 달리는 것에 재능이 있다.

-> 그는 [(그가) 달리다 + -ㄴ 것]에 재능이 있다.

(3)은 명사화 구성 예문인데 (3ㄱ)은 ‘-(으)ㄴ’ 명사화 구성, (3ㄴ)은 ‘-기’ 명사화 구성, (3ㄷ)은 ‘-ㄴ 것’ 명사화 구성이다. (3ㄱ)과 (3ㄴ)에서는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결합하는데, (3ㄷ)의 경우 관형화 어미 ‘-ㄴ’이 내포문이 될 문장의 어미에 결합하고, 내포문 명사 ‘것’이 이어 결합한다.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경우 관형화 구성의 구조 ‘관형절+내포문 명사’를 따른다. 하지만 관형화 어미 ‘-ㄴ’과 내포문 명사 ‘것’으로 구조가 고정된다는 점, 어떠한 상태, 행위 등을 나타내어 고정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점은 관형화 구성의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ㄴ 것’ 명사화 구성을 ‘-(으)ㄴ’ 명사화 구성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4)ㄱ. 생명을 사랑함이 필요하다.

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4)는 같은 의미의 문장을 ‘-(으)ㄴ’ 명사화 구성과 ‘-ㄴ 것’ 명사화 구성으로 나타낸 것이다. ‘-ㄴ 것’ 명사화 구성은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내어 고정된 대상보다는 ‘행동의 구체성’<sup>11)</sup>을 보여주게 된다. 아래부터는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제약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명사화 구성의 기능이다. 명사화 구성은 문장 내에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는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성분인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으

11) 서은아(1997)에 따르면, ‘-(으)ㄴ’ 명사화 구성은 ‘사실인식’ ‘-기’ 명사화 구성은 ‘행동성’, ‘-ㄴ 것’ 명사화 구성은 ‘행동의 구체성’으로 각각의 뜻바탕을 가지고 있다.

로<sup>12)</sup> 나타나게 된다.

(5) 그가 빵을 먹었음이 분명하다.

(5)는 ‘-(으)ㄴ’ 명사화 구성이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예이다. 명사화 구성이 주어로 기능할 때는 주격조사 ‘-이/가’나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게 된다. 이처럼 명사화 구성은 격조사 혹은 보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외에 결합하는 조사에는 목적격 조사 ‘-을/를’, 부사격 조사 ‘-에, -(으)로, -와/과, -보다’ 등이 있다.

조사가 수의적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 명사화 구성이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6)ㄱ. 날이 좋아서 밖에 나가기가 딱이다.

ㄴ. 날이 좋아서 밖에 나가기∅ 딱이다.

‘-기’ 명사화 구성은 (6ㄱ)처럼 조사가 결합한 상태에서 문장이 성립된다. 그러나 (6ㄴ)와 같이 결합한 조사가 생략된 경우에도 비문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사의 수의적 생략은 ‘-(으)ㄴ’과 ‘-ㄴ 것’ 명사화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7)ㄱ. \*그가 빵을 먹었음∅ 분명하다.

ㄴ. \*생명을 사랑하는 것∅ 필요하다.

(7ㄱ)은 ‘-(으)ㄴ’ 명사화 구성에, (7ㄴ)은 ‘-ㄴ 것’ 명사화 구성에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의 수의적 생략 현상은 ‘-기’ 명사화 구성의 구어적 특성에 영향을 받았다. 문어적 특성이

---

12) 보격 조사 ‘-이/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ㄱ. 그녀가 선생님이 됨이 아니다.

ㄴ. 함은 얇이다.

강한 ‘-(으)ㄴ’ 명사화 구성과 그와 유사한 ‘-ㄴ 것’ 명사화 구성은 조사의 생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에 ‘-기’ 명사화 구성에도 나타난다.

다음으로 명사화 구성의 제약을 살펴본다.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 서술어, 시제어미, 높임법 결합에서 제약되는데 명사화 어미와 관형화 어미에 관련하여 나타난다. 이때,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경우 상위문장 서술어 결합 제약은 확인할 수 없다. 형태면에서는 관형화 구성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상위문장 서술어에 대한 제약은 특정 명사화 구성에서 결합 가능한 상위문장 서술어의 유형이 제한되는 것이다. 명사화 어미 ‘-(으)ㄴ’만 결합 가능한 상위문장 서술어, 명사화 어미 ‘-기’만 가능한 상위문장 서술어, 둘 다 가능한 상위문장 서술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8)ㄱ. 진수가 나와 더 이상 만날 수 없음을 전했다.

ㄴ. 그녀가 그를 따라잡기 위해서 달린다.

ㄷ. 나는 카페에 잠을 바란다.

나는 카페에 가기를 바란다.

(8)은 각 명사화 구성에 결합가능한 상위문장 서술어 예문이다. (8ㄱ)은 ‘-(으)ㄴ’ 명사화 구성만 가능한 경우이고, (8ㄴ)은 ‘-기’ 명사화 구성만 가능한 경우이다. (8ㄷ)은 둘 다 가능한 경우이다. (8ㄱ)과 (8ㄴ)처럼 특정 명사화 구성만 가능한 경우는 다른 명사화 구성으로 교체했을 때, 결합이 제약된다.

이처럼, ‘-(으)ㄴ’만 가능한 경우는 담화, 감각, 인지를 나타내는 서술어 등이 있고 ‘-기’만 허용하는 경우는 시행이나 평가, 생각을 나타내는 서술어 등이 있다. 모두 가능한 경우는 요구를 나타내는 서술어나 ‘좋다’, ‘이다’류 등이 있다.

다음으로 시제어미 제약을 살펴보자. 시제어미는 현실법 ‘-었/았-’ 미정법 ‘-겠-’ 회상법 ‘-더-’로 실현된다.

(9)ㄱ. 그녀가 그를 사랑하-∅/었/겠/\*더-음을

ㄴ. 그녀가 그를 사랑하-∅/었/겠/\*더-기를



ㄷ. 그녀가 그를 사랑하-∅/\*겠/\*있/\*더-는 것을

(9)는 명사화 구성이 시제어미에 결합한 예이다. 순서대로 ‘-(으)ㄴ’, ‘-기’, ‘-ㄴ 것’인데, 각각 현실법, 완결법, 미정법, 회상법을 차례로 결합했다. 세 명사화 구성은 공통적으로 회상법 ‘-더-’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는 명사화 구성들의 기본 뜻바탕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은아(1997)에 따르면, ‘-(으)ㄴ’ 명사화 구성은 ‘사실인식’, ‘-기’ 명사화 구성은 ‘행동성’, ‘-ㄴ 것’ 명사화 구성은 ‘행동의 구체성’을 기본 의미로 가진다. 이것들은 특정한 상황이나 상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부분 현재를 뜻한다. 회상법과는 접하지 않는 시제인 것이다. 대신 이들은 현실법‘∅’의 결합에서 제약되지 않는다.

다음은 높임법 결합 제약이다. 명사화 구성에서 높임법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으로 실현된다.

(10)ㄱ.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옵-(으)ㄴ은

ㄴ. 진실을 간절히 바라-시/옵-기에

ㄷ.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옵-는 것은

(10)은 높임법이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예문이다. (10ㄱ)는 ‘-(으)ㄴ’, (10ㄴ)은 ‘-기’, (10ㄷ)는 ‘-ㄴ 것’이다.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는 모두 결합된다. 하지만,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에는 ‘-(으)ㄴ’과 ‘-ㄴ 것’이 제약되고 있다. 하지만 어미 ‘-(으)옵/으오-’가 예스러운 표현이기에 ‘-기’ 명사화 구성과 결합한 예도 글에서만 간혹 보이고 구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편<sup>13)</sup>이다. 문어체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명사화 구성에 대하여 살펴본 소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화 구성은 기본적으로 하위문장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는 구성이다. 명사화 어미‘-(으)ㄴ’과 ‘-기’가 구성에 관여하는 ‘-(으)ㄴ’명사화 구성과 ‘-기’명사화 구성, 관형화

13) 김현숙,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 17.

어미 ‘-ㄴ’과 의존명사 ‘것’의 조합인 ‘-ㄴ 것’ 명사화 구성이 있다.

명사화 구성은 격조사나 보조사와 결합을 통해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 이때 ‘-기’ 명사화 구성에서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수의적으로 생략 가능하나, ‘-(으)ㄴ’ 명사화 구성과 ‘-ㄴ 것’ 명사화 구성에서는 이러한 생략이 어렵다.

계약에는 상위문장 서술어, 시제어미, 높임법 세 가지가 있는데, 명사화 구성을 만드는 명사화 어미나 관형화 어미에 관련이 있다. 먼저, 상위문장 서술어 결합 제약이다. ‘-(으)ㄴ’ 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감각을 나타내는 서술어나 담화를 나타내는 서술어 등이 있고, ‘-기’만 허용하는 경우는 시행이나 평가, 생각을 나타내는 서술어 등이 있다. 또한, 이들 모두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대나 요구를 나타내는 서술어 등이 있다. 다음은 시제어미 결합 제약으로, 모든 명사화 구성에서 회상법‘-더-’의 결합이 제약되고 있다. 즉 ‘-(으)ㄴ’과 ‘-기’는 회상법을 제외한 시제어미 결합에 제약되지 않는다. 여기에 ‘-ㄴ 것’은 완결법과 미정법에도 제약된다. 마지막은 높임법 결합 제약이다. 여기에서는 ‘-기’만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까지 결합할 수 있고, 나머지의 경우 주체높임만 실현된다.

### 2.1.2. 관형화 구성

관형화 구성은 명사구 내포문의 한 분류로 관형화 어미와 내포문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관형화 구성을 이루고 있는 하위문장은 관형화 어미가 결합하는 관형절이기에, 혼자서는 명사구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관형화 어미는 ‘-ㄴ’과 ‘-ㄴ’ 두 가지<sup>14)</sup>이다. 이 어미를 중심으로 자립명사 혹은 의존명사가 결합한다.

(11)ㄱ. 진주는 오늘 먹은 밥을 떠올렸다.

ㄴ. 분명 세상에 널리 알려질 사람이다.

14) 관형화 어미를 더 세분화하면 관형화 어미 ‘-ㄴ’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각 관형화 어미는 관형절을 구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관형화 구성의 시제어미 결합과 내포문 명사 결합에서 제약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된다.

-ㄴ		-ㄴ(미정)
-(으)ㄴ(완결)	-는(현실)	

(11)은 관형화 구성의 예이다. (11ㄱ)는 관형화 어미 ‘-ㄴ’이 자립명사 ‘밥’과 결합한 것이고 (11ㄴ)는 관형화 어미 ‘-ㄴ’이 자립명사 ‘사람’과 결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관형화 어미가 결합한 관형절 ‘오늘 먹은’, ‘세상에 널리 알려질’은 홀로 쓰이면, 문장 내에서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이처럼 관형화 구성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명사구의 역할로 기능하도록 하는 명사를 머리명사 혹은 내포문 명사라고 칭한다.

내포문 명사는 앞서 살펴본 자립명사뿐만 아니라 의존명사도 쓰일 수 있다.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나누는 특성은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관형절 등의 수식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것이 의존명사<sup>15)</sup>, 수식 없이 홀로 문장에서 설 수 있는 것이 자립명사이다.

(12)ㄱ. 저 빵은 내일 먹을 것이다.

ㄴ. 인형을 물에 담긴 채로 두어라.

(12)는 관형절에 의존명사가 결합한 예문이다. (12ㄱ)는 ‘것’, (12ㄴ)은 ‘채’가 내포문 명사로 결합하여 관형화 구성을 이루고 있다. 관형절과 수식관계인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내에서 빠져나와 생략된 성분일 수도 있고, 관형절 내 성분과 관계없이 결합된 성분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의 관계를 각각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이라 칭한다.

먼저 관계화 구성이다. 관계화 구성은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 내 어떤 성분과 동일지시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그 성분은 관형절 내에서 ‘빠져나와’ 생략되고 내포문 명사로 나타난 것이다.

15) 의존명사는 크게 형식성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그 중에서도 형식성 의존명사이다. 형식성 의존명사는 주로 기능하는 문장 성분에 따라 나눈 것으로 모든 문장성분에 두루 쓰이는 보편성 의존명사를 포함하여, 주어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 총 네 가지가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분류	소분류	종류
형식성 의존명사	보편성 의존명사	것, 분, 데, 이, 바 등
	주어성 의존명사	지, 수, 리, 나위 등
	서술성 의존명사	따름, 터, 때문 등
	부사성 의존명사	줄, 채, 김, 만큼, 대로, 양, 체, 뻔 등

(13) 영이는 털이 폭신한 강아지를 좋아한다.

-> 영이는 [(강아지가) 털이 폭신한] 강아지를 좋아한다.

(13)에서 ‘강아지’는 관형절 내에서 주어이지만 빠져나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가 되었다. 즉, ‘털이 폭신한’이라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강아지’와 관형절 내 존재했던 ‘(강아지가) 털이 폭신하다’ 주어 ‘강아지’가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관형절 내에 있는 동일지시 관계의 성분은 내포문 명사가 되어 명사구를 구성한다.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내에 어떤 성분이 빠져나오느냐에 따라 세분해 볼 수 있다. 이를 각각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이라고 한다.

(14)ㄱ. 영이는 털이 폭신한 강아지를 좋아한다.

-> 영이는 [(강아지가) 털이 폭신한] 강아지를 좋아한다.

ㄴ. 나는 그가 듣는 노래가 궁금했다.

-> 나는 [그가 (노래를) 듣는] 노래가 궁금했다.

ㄷ.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싫다.

-> [사람이 많이 (곳에) 모이는] 곳은 싫다.

위의 (14)는 자립명사가 빠져나와 관계화 구성을 이루는 예문이다. (14ㄱ)의 ‘강아지’, (14ㄴ)의 ‘노래’, (14ㄷ)에서 ‘곳’이 수식받는다. 관형화 구성은 자립명사 뿐만 아니라 의존명사도 나타날 수 있다. 이어진 예문을 살펴보자.

(15)ㄱ.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를 원한다.

ㄴ. 나현이가 나에게 받은 것을 돌려줬다.

ㄷ. 도연이가 그녀를 만났던 데를 찾지 못했다.

(15)는 의존명사들이 관계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로 나타난 예이다. (15ㄱ)는 ‘이’, (15ㄴ)는 ‘것’, (15ㄷ)은 ‘데’가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15ㄴ)

의 ‘것’은 앞서 살펴본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것’과 의미가 다르다.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보문화 구성이다. 보문화 구성은 관계화 구성과는 달리 동일지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관형절은 안에서 생략되어 빠져나가는 성분이 없는 온전한 형태의 문장이라는 것이다.

(16) 윤지는 버스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 윤지는 [ 버스가 이미 떠났다 + ‘-ㄴ’ ] 사실을 알았다.

이어진 (16)은 보문화 구성의 예이다. 예문에서 내포문 명사는 ‘사실’이다. 관형화 어미 ‘-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관형절 ‘버스가 이미 떠났다는’에는 ‘사실’이 문장성분으로 들어갈 수 없다. 관형절 자체가 이미 온전한 의미를 갖춘 것으로 내포문 명사 ‘사실’은 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다.

(17)ㄱ. 나는 그가 웃는 이유를 모르겠다.

ㄴ. 그가 빵을 먹고 싶어 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

위의 (17)은 보문화 구성의 예를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17ㄱ)는 자립명사 ‘이유’가 ‘그가 웃다 + -ㄴ’로 구성된 관형절과 함께 하는 경우이고, (17ㄴ)는 의존명사 ‘데’가 ‘그가 빵을 먹고 싶어 하다 + -ㄴ’이라는 관형절과 결합하는 경우이다. 모두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 내에 문장성분으로 존재하지 않아 빠져나오는 성분 없이 온전한 관형절을 이룬다.

마지막은 관형화 구성의 제약이다. 관형화 구성의 제약은 시제어미, 높임법, 내포문 명사 결합 제약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관형화 어미 ‘-ㄴ’과 ‘-ㄴ’이 깊이 관여되어 있어 이들의 종류에 따라 제약이 결정된다. 시제어미에 관여하는 관형화 어미 ‘-ㄴ’과 ‘-ㄴ’은 관형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제어미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 ‘-(으)ㄴ’은 완결, ‘-는’은 현실, ‘-르’은 미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먼저 시제어미 결합을 살펴보자.

- (18)ㄱ. 그녀가 먹-∅/\*있/\*겠/더-(으)ㄴ 사과가  
 ㄴ. 그녀가 먹-∅/\*있/\*겠/\*더-는 사과가  
 ㄷ. 그녀가 먹-∅/\*있/\*겠/\*더-(으)ㄴ 사과가

(18)은 관형화 구성에 시제어미가 나타난 예문이다. 순서대로 (18ㄱ)에서 관형화 어미 ‘-(으)ㄴ’, (18ㄴ)에서 관형화 어미 ‘-는’, (18ㄷ)에서 관형화 어미 ‘-ㄴ’이다. ‘-(으)ㄴ’은 완결법의 성질을 가져 같은 시제를 취할 수 없고, 반대 시제에 기울 수 없기에 완결법과 미정법이 제약된다. 대신 회상법이 결합된다. 관형화 어미 ‘-는’과 ‘-ㄴ’에서 회상법 ‘-더-’가 제약된다. 관형화 어미 ‘-는’이 가지는 현실법의 시제어미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았기에<sup>16)</sup> 회상법을 비롯한 완결법, 미정법에 제약되고, 관형화 어미 ‘-ㄴ’은 미정법의 시제어미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회상법에 결합할 수 없다. 하지만 관형화 어미 ‘-ㄴ’은 완결법에 예외를 보이기도 한다.

(19) 그녀가 남은 사과를 먹었을 것이 분명하다.

(19)는 관형화 어미 ‘-ㄴ’에 완결법이 나타난 예문이다.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로, 완결법에 대한 제약이 풀리고 있다. 즉, 내포문 명사의 유형에 따라 제약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음은 관형화 구성에서 높임법에 나타나는 제약이다. 관형화 구성에서 높임법은 관형화 어미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나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이 결합하여 실현된다. 이때에도 관형화 어미에 따라 제약이 될 수 있다.

- (20)ㄱ. 당신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주시는 사탕이 달콤했다.  
 ㄴ. \*그분께서 필요하-옵-ㄴ 것은 하나다.  
 정말로 감사하옵는 바입니다.

16) 김현숙,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 23.

(20)은 관형화 어미 ‘-ㄴ’과 ‘-ㄹ’의 높임법 결합이 나타난 예문이다. (20ㄱ)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한 것이고, (20ㄴ)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이 나타난 것이다. 관형화 어미 ‘-ㄹ’은 상대높임법이 제약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포문명사 제약이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화 어미가 결합할 때 특정 내포문 명사 즉 내포문 명사가 제약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의존명사의 예와 자립명사의 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의존명사에서 관형화 어미에 따른 제약을 살펴보자.

(21)ㄱ. 그는 감기라도 걸린 양 심하게 기침을 토해 낸다.

너를 좋아하는 양 친절을 베풀고 있으나

ㄴ. 고시를 볼 양이면 각오를 단단히 해라.

(21)은 의존명사 ‘양’의 예문<sup>17)</sup>이다. (21ㄱ)에는 관형화 어미 ‘-ㄴ’이 쓰였고, (21ㄴ)는 관형화 어미 ‘-ㄹ’이 나타나는데,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관형화 어미가 결정된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행동을 취함’을 나타낼 때에는 관형화 어미 ‘-ㄹ’에 제약되지만, ‘의향 혹은 의도’를 뜻할 때 관형화 어미 ‘-ㄹ’을 취하게 되는 식이다. 이와 같이 특정 관형화 어미만을 제약하는 의존명사의 예<sup>18)</sup>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 양상은 자립명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2)ㄱ. \*책을 가지고 오는 필요가 없다.

ㄴ. 책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22)는 자립명사 ‘필요’가 나타난 예문이다. (22ㄱ)는 관형화 어미 ‘-ㄴ’이 나타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존명사 ‘양’에 관한 예문을 참고하였다.

18) 권재일(1985)은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와 결합하는 데 나타나는 제약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아래 내용과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내포문 명사의 제약을 살펴본다.

제약여부	예
‘-ㄹ’ 제약	김, 때문, 바람, 양<...것처럼>, 족족, 차, 척, 체, 측, 통, 티, 편
‘-(으)ㄴ’만 결합	간, 채
‘-는’만 결합	등, 법<경우>, 수<경우>, 중, 품, 한
‘-ㄹ’만 결합	마른, 나위, 녘, 따름, 리, 만, 망정, 뻔, 법<가능>, 뻔, 수<능력>, 양<의향>, 짝, 줄<능력>, 즈음, 쯤, 턱

났는데, 제약되고 있다. 이처럼 관형화 어미는 특정한 자립명사에 제약되는 양상을 보인다. 관형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는 것은 ‘수단’, ‘가설’ 등이 있고, 관형화 어미 ‘-는’을 제약하는 것은 ‘결과’, ‘이후’, ‘뒤’ 등이 있다. 관형화 어미 ‘-르’를 제약하는 것은 ‘이상’, ‘다음’ 등이 있다. 특정 관형화 어미가 제약되는 자립명사들은 지시하는 대상, 사건의 시점이 그 관형화 어미의 시제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미정의 의미를 지닌 관형화 어미 ‘-르’에는 과거나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합하는 자립명사 ‘이후’, ‘뒤’ 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형화 구성을 살펴본 소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내포문 명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이때, 관형화 어미에 따라 ‘-ㄴ’ 관형화 구성과 ‘-르’ 관형화 구성으로 나누고, 내포문 명사 유형에 따라 자립명사구문, 의존명사 구문으로 나눈다. 이를 내포문 명사와 관형절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된다. 이 중에서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의 관계가 ‘동일지시 관계’일 경우 관형절 내 문장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된다. 여기서 빠져나온 성분에 따라 주어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구분한다. 이에 반해 보문화 구성은 관형절 내에서 빠져나간 성분이 없다. 따라서 보문화 구성은 온전한 문장을 이룬 관형절이 내포문 명사의 수식을 담당한다.

관형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시제어미, 높임법, 내포문 명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관형화 어미 ‘-ㄴ’과 ‘-르’에 관련이 있다. 먼저, 시제어미 결합 제약이다. 관형화 어미 ‘-(으)ㄴ’은 완결법과 회상법만 결합되고 관형화 어미 ‘-는’과 ‘-르’은 현실법만 결합할 수 있다. 다만, 관형화 어미 ‘-르’은 완결법과 결합할 때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여야만 가능하다. 다음은 높임법 결합 제약은 관형화 어미 ‘-르’에만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이 제약되고 있다. 마지막은 내포문 명사 결합 제약이다. 의존명사에서 ‘-(으)ㄴ’을 제약하는 것으로 ‘리’, ‘만’ 등이 있었고, ‘-는’을 제약하는 것으로 ‘깐’, ‘채’ 등이 있었다. ‘-르’를 제약하는 의존명사에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행동을 취함’을 나타내는 ‘양’ 등이 있다. 또한, 자립명사에서 ‘-(으)ㄴ’을 제약하는 것은 ‘필요’, ‘수단’ 등이고, ‘-는’을 제약하는 것은 ‘필요’, ‘이후’ 등이다. ‘-르’를 제약하는 자립명사에는 ‘이상’, ‘다음’ 등이 있다.



## 2.2. 1920년대 잡지의 목록

1920년대 출판계는 일제강점기이지만, 문화통치로의 전환으로 인해 외국인 대표 없이도 조선인의 신문·잡지의 발행이 가능해졌고, 1922년에 이르러 잡지 간행에 제약을 주었던 ‘출판법’<sup>19)</sup> 대신 ‘신문지법’에 의해 기사 허가를 받도록 바뀌면서 정치 논평이나 시사문제도 실릴 수 있게 되었다.<sup>20)</sup>

그 결과 1920년대는 ‘잡지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잡지들이 간행되었다. 최수일(2002)에 따르면, 1920년대 당시 발행된 잡지의 수는 200종이며, 발행 부수는 1000-2000부였던 것이 5000-6000부 혹은 1만부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종합지를 비롯해 아동지·여성지·학술지·문예지 등 잡지의 종류 또한 다채로워졌다.<sup>21)</sup> 이 연구에서 명사구 내포문을 추출할 자료는 잡지의 전성기 중 하나인 1920년대 잡지이다. 2.2장에서는 연구 대상을 특정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1920년대 잡지<sup>22)</sup>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3-1> 1920년대 잡지 목록①

번호	잡지명	발행	성격	번호	잡지명	창간	성격
1	가면	1925	문예지	9	신여성	1923	여성지
2	갈뚝	1922	기관지	10	신여자	1920	여성지
3	개벽	1920	종합지	11	신인간	1926	기관지
4	개척	1926	문예지	12	신조선	1927	종합지
5	경신	1929	교우지	13	신천지1	1921	종합지
6	경제	1928	경제지	14	신통	1925	종합지
7	경제연구	1927	경제 학술지	15	신흥	1929	학술지
8	계명	1921	기관지	16	신흥과학	1927	사회 과학지

19) 1922년 이전 잡지는 ‘출판법’에 따라 내놓을 수 있는 기사의 내용을 제약 받았다. ‘종교·학술·문예’ 외의 내용은 잡지에 실지 못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문지법’을 따르게 되면서 제약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고, 이는 1920년대 잡지가 발전하는 것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20) 최덕교, 『한국잡지 백년2』, 현암사, 2005, pp. 73-75.

21) 최수일, 「1920년대 문학과 『開闢』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12.

22) 최덕교, 『한국잡지 백년』, 현암사, 2005.의 목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중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에 자료가 남아있는 잡지를 선정하였다.

<표3-2> 1920년대 잡지 목록②

번호	잡지명	창간	성격	번호	잡지명	창간	성격
17	계우	1927	교우지	50	아성	1921	기관지
18	공우	1920	계몽지	51	아이생활	1926	소년지
19	공제	1920	기관지	52	어린이	1923	아동지
20	과학	1929	학술지	53	여광	1920	문예지
21	괴기	1929	인문 과학지	54	여명	1925	운동지
22	근우	1929	기관지	55	여시	1928	학예지
23	금강저	1924	기관지	56	여자시론	1920	여성지
24	금성	1923	문예지	57	연희	1922	교우지
25	낙원	1921	대중지	58	염군	1922	사회 주의지
26	농민1	1923	농민지	59	영대	1924	문예지
27	농민생활	1929	농민지	60	예술운동	1927	문예지
28	동광	1926	종합지	61	요람1	1921	문예지
29	동명	1922	시사지	62	우라끼	1925	기관지
30	동학지광	1927	기관지	63	원고시대	1928	종합지
31	로룡성	1922	기관지	64	유도	1921	기관지
32	룡천검	1928	종교지	65	음악계	1925	음악지
33	문명	1925	과학지	66	이론투쟁	1927	사회 주의지
34	문예공론	1929	문예지	67	이화	1929	교우지
35	문예시대	1929	문예지	68	일광	1928	교우지
36	문예영화	1928	문예지	69	자력	1928	기관지
37	문예운동	1926	준기관지	70	장미촌	1921	시전문 문예지
38	문우1	1924	문예지	71	장한	1927	동인지
39	반도지광	1921	종합지	72	정론	1925	사회 평론지
40	배화	1929	교우지	73	정진	1929	기관지
41	백웅	1928	문예지	74	제삼전선	1927	문예지
42	백조	1922	문예지	75	조선농민	1925	농민지
43	백치	1928	문예지	76	조선문단	1924	문예지
44	별건곤	1926	대중지	77	조선문예2	1929	문예지
45	별나라	1926	소년지	78	조선시단	1928	문예지
46	부녀지광	1924	여성지	79	조선지광	1922	종합지
47	부인	1922	여성지	80	조선체육계1	1924	체육지
48	불교	1924	종교지	81	조음	1920	운동지
49	불일	1924	종교지	82	중성	1929	대중지

<표3-3> 1920년대 잡지 목록③

번호	잡지명	창간	성격	번호	잡지명	창간	성격
83	사상운동	1924	기관지	110	진생	1925	기관지
84	사조	1927	문예 학술지	111	청년	1921	종교지
85	산업계	1923	기관지	112	취산보림	1920	종교지
86	삼천리	1929	대중지	113	평범	1926	불교 문예지
87	새동무	1920	소년지	114	폐허	1920	문예지
88	새벗1	1925	소년지	115	폐허이후	1924	문예지
89	생-성	1928	문예지	116	포천잡지	1926	향토지
90	생장	1925	문예지	117	학생	1929	학생지
91	서화협회회보	1921	미술지	118	학생계	1920	학생지
92	성서조선	1927	신앙 동인지	119	학조	1926	기관지
93	세브란스교우 회보	1929	교지	120	한글1	1927	학술지
94	소년세계	1929	소년지	121	한빛	1928	학술지
95	수리계	1925	소년 과학지	122	함안	1926	동인지
96	송실활천	1927	교지	123	해외문학	1927	기관지 문예지
97	습작시대	1927	문예지	124	현계단	1928	사상지
98	시사평론	1922	시사 평론지	125	현대	1920	기관지
99	시종	1926	종합지	126	현대부인	1928	여성지
100	신문춘추	1928	신문 평론지	127	현대평론	1927	종합지
101	신민	1925	종합지	128	협실	1029	학생회지
102	신민공론	1921	종합지	129	활천	1922	종교지
103	신사회	1926	종합지	130	회광	1929	기관지
104	신생	1928	종합지	131	휘문	1923	교우지
105	신생명	1923	기독교지				
106	신생활	1922	종합지				
107	신소년	1923	소년지				
108	신소설	1929	문예지				
109	신시단	1928	문예지				

1920년대 잡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30여개 가량이었으며, 목록은 위와 같다. 이 중에서 수록된 글들이 확인가능하며, 대상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자료의 수가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날 만큼 다량 남아 있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것이 바로 『개벽』, 『별건곤』, 『삼천리』이다. 이어지는 3장부터는 이들 잡지에 나타난 1920년대 명사구 내포문을 분석하도록 한다.

### 3. 1920년대 잡지의 명사화 구성

명사화 구성은 명사구 내포문의 한 종류로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결합하여 실현된다. 여기에 통어론적 명사화 구성인 ‘-ㄴ 것’을 추가할 수 있다. ‘-ㄴ 것’ 명사화 구성은 관형화 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17세기 등장 이후 명사화 구성으로서 ‘-(으)ㄴ’, ‘-기’ 명사화 구성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 명사화 구성은 격조사 혹은 보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문장성분 기능을 하게 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현대국어에서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기능, 제약이 1920년대 간행된 잡지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명사화 구성의 분포를 분석하여 1920년대 명사화 구성 변화 양상을 알아보도록 한다.

#### 3.1. ‘-(으)ㄴ’ 명사화 구성

‘-(으)ㄴ’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 ‘-(으)ㄴ’이 어간에 붙어 절을 이루고, 문장 성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시적으로 15세기 이전 국어에서부터 나타난 ‘-(으)ㄴ’ 명사화 구성은 15세기보다 현대국어에 이르러 빈도수나 분포가 약해졌다.

1920년대 잡지에 나타난 ‘-(으)ㄴ’ 명사화 구성은 세 개의 잡지를 통틀어 총 2000여 개<sup>23)</sup>다. 잡지별 통계 및 자세한 수치는 정리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기능에서 살펴볼 부분은 각각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23) 위의 수치는 앞으로 기능에서 살펴볼 문장성분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포함하여 보어와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 3.1.1. ‘-(으)ㄴ’ 명사화 구성의 기능

‘-(으)ㄴ’은 격조사 ‘-이/을/에/(으)로/와/보다’와 보조사 ‘은’과 결합하여 문장 성분을 이룬다. 15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으)ㄴ’ 명사화 구성의 기능을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주어

‘-(으)ㄴ’ 명사화 구성이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주격조사 ‘-이/가’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과 보조사 ‘-은/는’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sup>24)</sup>을 보자.

(23ㄱ). 開關 雜誌가 나게됨이 어찌 偶然이라. (사고·편집후기②20.06.개벽1)

일은 神速함이 貴하다 (문예기타⑤27.12.별건곤10)

外國人을 待함에 有別함이 잇겟거니와 (기행문①29.11.삼천리3)

ㄴ. 그의 가혹함은 참으로 말할 수 업게 되얏다 (논설①23.12.개벽42)

前에 擊치 안음은 당연하거니와 (문예기타②26.11.별건곤1)

態度가 조금도 업서 보임은 스사로 깨다를만 하더이다 (기행문①29.11.삼천리3)

(23ㄱ)은 주격조사 ‘-이’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용언의 어미에 명사화 어미 ‘-(으)ㄴ’이 붙어 명사화 구성을 이루고, 그 뒤에 주격조사인 ‘-이’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ㄴ)처럼 주격조사는 아니지만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23ㄴ)는 주격조사 대신 보조사 ‘-은’이 명사화 어미 ‘-(으)ㄴ’이 결합된 구에 붙어 주어로

24) 아래부터는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의 예문들을 살펴본다. 다만, 13권 모두에서 예문을 제시할 경우 예문의 분량이 너무 많아져 분량 내에 보여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잡지별로 한 개 정도의 예문만을 제시하고자함을 미리 알린다.

기능한다.

(2) 목적어

‘-(으)ㄴ’ 명사화 구성은 목적어로도 기능한다. 목적어로 기능할 때에는 ‘-(으)ㄴ’ 뒤에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여 목적어가 될 수 있다.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예는 다음과 같다.

(24) 내 꼴이 넘우 딱함을 보고 (세태비평②21.12.개벽18)

作者의 無氣力함을 보는 수 있다 (문예평론③27.12.별건곤10)

感想的 情懷가 이러남을 禁할 길이 업더이다 (기행문①29.11.삼천리3)

(24)는 1920년대 잡지에서 ‘-(으)ㄴ’명사화 구성이 목적어로 기능한 예이다. 목적어로 ‘-(으)ㄴ’ 명사화 구성은 목적격 조사‘-을’을 뒤에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3) 부사어

‘-(으)ㄴ’ 명사화 구성은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를 이루기도 한다. 부사격 조사에는 ‘-에’ ‘(으)로’ ‘와/과’, ‘보다’의 예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부사어로 기능하는 ‘-(으)ㄴ’ 명사화 구성은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거나 수식하게 된다. 먼저 부사격 조사 ‘-에’와 ‘-(으)로’의 예문을 살펴보자.

(25)ㄱ. 以下가 업다 假定함에 至하면 (논설①20.06.개벽1)

불규칙한 버릇임에 지나지 안는다 (설문①28.12.별건곤16)

外國人을 待함에 有別함이 잇겟거니와 (기행문①29.11.삼천리3)

ㄴ. 修身先生이 가장 적임임으로 그에게 일임하고 (논설⑤25.08.개벽62)

且 宗室 중 反軌者가 多함으로 許積의 庶子 許堅이 此等과 結탁하여 반정을 謀하다가 (논설①28.12.별건곤16)

名士에게 紹介하여 주는 글발을 하여 좁으로 그도 또한 지내게 되었스  
니 (기행문①29.11.삼천리3)

(25ㄱ)는 부사격 조사 ‘-에’가 ‘-(으)ㄱ’에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고,  
(25ㄴ)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으)ㄱ’에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이다. 다  
음은 부사격 조사 ‘-와/과’의 예이다.

(26)ㄱ. 泄水가 渦狀을 成함과 가티 球形이 되었고 (논설⑨20.06.개벽1)

구여성이 신식에 어둡은 것이 病點임과 가티 신여성이 구식을 너무 몰  
으는 것도 一病點인 것 갖다 (회고·수기②29.12.별건곤24)

他에 經濟生活의 依托하는 것을 婦人의 宜當한 處地임과 갖치 알고  
(논설①1929.11.13.삼천리3)

ㄴ. 歐洲의 文藝復興이 잇슴과 가타였나니 (논설④22.12.개벽30)

枯凋하여 重霜을 被함과 如하얏고 (문예기타②26.11.별건곤1)

당쟁이 정치에 여하한 악영향을 與한 것은 상술함과 갖거니와 (논설①  
28.12.별건곤16)

(26)은 부사격 조사 ‘-과’와 결합해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예이다.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용언에서 파생되어 나온 부사에 수반되어 보충  
어 혹은 부가어로 들어가는 경우인 (26ㄱ)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의 의미인 (26  
ㄴ)이다. 전자는 파생된 부사와 함께 보충어 전체가 부사어로 기능한다. 파생된  
부사의 예 (26ㄱ)는 ‘같이’, ‘없이’ 등이 있으며, 위에서는 주로 ‘같이’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자인 (26ㄴ)은 서술어로 ‘같다’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다’를 비롯하여 ‘다름없다’ 등의 용언이 서술어로 나타날 수 있다.

(27) 殖民政策은 兵革을 起하여 殖民地를 得함보다 工業的 殖民政策을 쓰는 것  
이 可하다하여 (논설⑩20.06.개벽1)

그것이야말로 朝鮮의 체육계를 위함보다 朝鮮의 教育界를 위하여 (소식①  
23.12.개벽42)

살아서 욕을 당함보다 차라리 깨끗히 죽는 편이 쾌하리라 하여 (잡저④  
29.06.삼천리1)

(27)은 부사격 조사 ‘-보다’가 ‘-(으)ㄴ’ 명사화 구성과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이다. ‘-보다’는 비교 대상 뒤에 붙어 ‘-의 비해서’의 의미를 지닌다.

### 3.1.2. ‘-(으)ㄴ’ 명사화 구성의 제약 양상

‘-(으)ㄴ’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 서술어, 시제어미, 높임법 결합에서 제약이 나타난다. 이는 명사화 구성의 어미에 드러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명사화 어미 ‘-(으)ㄴ’가 결합에 있어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1920년대 잡지들에서 차례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상위문장 서술어 결합

명사화 어미 ‘-(으)ㄴ’은 특정 상위문장 서술어에서 제약을 받는다. 명사화 어미 ‘-(으)ㄴ’의 경우 ‘감정, 정의적, 평가, 판단’ 등이나, ‘담화, 인지, 감각, 생각, 알봄, 찬동, 발견’<sup>25)</sup>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쓰인다. 이 중 1920년대 잡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8)ㄱ. 기회를 엿지 못함이 恒時 유감되는 차에 (기행문①22.12.개벽30)

미루게 된 기사가 적지 안음이 미안하다 (사고·편집후기①24.12.개벽54)

ㄴ. 臥字를 汚로 改함이 宜하니라 (문예평론①21.12.개벽18)

즉 반듯이 統一久後의 陵墓임이 分明한데 (기행문① 21.12.개벽18)

ㄷ. 合眞理의 信仰을 宣傳함을 要求하는 바로다 (세태비평①20.06.개벽1)

讀者諸位는 惠諒後援하심을 囑望하나이다 (사고·편집후기②26.08.개벽

25) 서은아, 「현대 국어 풀이씨의 이름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15-24. 전자의 경우 ‘-(으)ㄴ’이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에서 확인한 것이다.



72)

(28)은 감정 혹은 평가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쓰인 것이다. (28ㄱ)은 ‘유감 되다, 미안하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사용되었다. (28ㄴ)은 ‘마땅하다, 분명하다’ 등 평가를 뜻하는 서술어가 사용되었다. (28ㄷ)은 요구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가 결합한 것이다. ‘요구하다, 소망하다’ 등이 확인되었다.

(29) 누구나 致賀치 안홀 수 업슴은 事實이올시다. (논설⑥21.12.개벽18)  
牛馬車 자동차의 便이 有함은 물론이고 (소식⑧24.12개벽54)  
아름다운 존재를 자랑하지 못하였슴은 무엇보담 유감이였다 (기행문①  
26.11.별건곤1)

명사화 어미 ‘-(으)ㄴ’에는 ‘이다’도 쓰인다. (29)는 ‘이다’류의 서술어가 쓰인 예이다. ‘사실이다, 물론이다, 유감이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명사화 어미 ‘-(으)ㄴ’이 결합한 상위문장 서술어에는 담화, 감각, 인지의 의미를 가진 것도 있었다.

(30) 嘆한 一節에 其 家運의 衰崩함을 發表하섯더니라. (논설③20.06.개벽1)  
小說의 事件은 참됨을 傳할 것이다 (문예평론②20.06.개벽1)  
對外問題에도 협동할 수 업슴을 말하면서 (태세비평①26.08.개벽72)  
御者가 장군의 死함을 告하매 (문예기타②26.11.별건곤1)

(30)은 담화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를 사용한 예이다. 1920년대 잡지에서는 ‘발표하다, 전하다, 말하다, 고하다’ 등이 나타났다.

(31)ㄱ. 내 꼴이 넘우 딱함을 보고 (세태비평② 21.12.개벽18)  
十餘數의 新宗教가 出함을 듯고 보니 (세태비평①20.06.개벽1)  
ㄴ. 關係가 有함을 切覺하얏다 (논설⑦20.06.개벽1)  
汝等은 『키레』라는 文字가 妾의 心臟에 深刻되얏슴을 發見하리라 (논설⑫20.06.개벽1)

그리 보기 조하하는 것이 아님은 아려야 한다 (문예평론27.12.별건곤10)

(31)은 감각이나 인지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결합한 예이다. (31ㄱ)은 ‘보다, 듣다’ 등 감각을 의미하는 서술어이고, (31ㄴ)에는 인지를 나타내는 ‘절각하다, 발견하다, 알다’ 등이 나타난다.

‘-(으)ㄴ’을 제약하는 상위문장 서술어는 ‘시작하다’, ‘위하다’, ‘기다리다’, ‘쉽다’, ‘어렵다’, ‘마련이다’ 등이 있다. 위 상위문장 서술어는 명사화 어미 ‘-기’에만 결합할 수 있다.

## (2) 시제어미 결합

명사화 어미 ‘-(으)ㄴ’은 시제어미가 결합하는 것에 있어 회상법 ‘-더-’에 제약만 있을 뿐 현실법, 완결법, 미정법은 별 다른 문제없이 결합한다. 예문을 통해 1920년대 잡지에 드러난 예를 차례로 살펴보자.

(32)ㄱ. 기교의 우수함이 他에 求得키 難한 者이엇슴을 可知요 (논설⑥22.12.개벽30)

여러 가지 난관이 잇슴을 짐작하고 (설문⑩28.12.별건곤16)

ㄴ. 널니 전 세계에 확대하게 되엇슴을 따라서 (논설⑥26.08.개벽72)

신라의 미술이 얼마나 진보되얏슴에 놀내지 안이할 수 업는 유일의 자료이라 할 만하다 (논설②29.06.삼천리1)

(32)는 현실법과 완결법이 실현된 경우이다. (32ㄱ)에서 현실법은 ‘Ø’이 결합하고, (32ㄴ)에서 완결법은 ‘-엇/았-’이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나는 君의 人格, 思想을 可히 信用하겠슴으로 勿論 親交의 榮을 어든 바이지만 (회고·수기②28.12.별건곤16)

러행을 안이 떠나고는 못 견디겠슴으로 T에게는 「하르빈」에 계신 아버님을 차저 뵈오려 간다고 (회고·수기⑤28.12.별건곤16)

다음 (33)은 명사화 어미 ‘-(으)ㄴ’이 미정법과 결합하는 예이다. 1920년대 잡지에서는 찾기 어려웠으나, ‘-겠-’을 사용하여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높임법 결합

높임법 결합에서 명사화 어미 ‘-(으)ㄴ’은 객체높임 선어말어미가 소멸한 후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만 실현된다. 1920년대 잡지의 예문을 살펴보자.

#### (34) 神의 指示하심이엇던지 (회고·수기②21.12.개벽18)

선생님께서서는 정신학교까지 맞혀보심으로 늘 분주다사하시여서 (소식⑦ 28.12.별건곤16)

(34)는 명사화 어미 ‘-(으)ㄴ’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되는 경우이다. ‘-시-’ 뒤에 명사화 어미가 결합해 주체높임을 실현하며 ‘-(으)ㄴ’ 명사화 구성을 이루고 있다.

## 3.2. ‘-기’ 명사화 구성

‘-기’ 명사화 구성은 용언어간에 명사화 어미 ‘-기’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다. 15세기 이전부터 활발히 사용되었던 ‘-(으)ㄴ’ 명사화 구성과 달리 16세기에야 활발해졌다. 그리고 현대국어까지 ‘-(으)ㄴ’ 명사화 구성을 대신하며 분포를 확장하였다. 1920년대 잡지에서 ‘-기’ 명사화 구성도 약 2000여개가 확인되었다.

### 3.2.1. ‘-기’ 명사화 구성의 기능

‘-기’ 명사화 구성 또한 ‘-(으)ㄴ’ 명사화 구성처럼 격조사나 보조사와의 결합을 통해 문장성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주어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주어

먼저, ‘-기’ 명사화 구성이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문장성분에서 주어의 기능을 나타낼 때에는 주격조사 ‘-이/가’나 보조사 ‘-은/는’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예를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다.

(35)ㄱ. 나는 그들과 가티 잇기가 불편하야 (소식⑧23.12.개벽42)

당신하고 말하기가 실혀서 그랫겠서요 (세대비평②26.11.별건곤1)

力作을 덜컥 제공하기가 힘들겟습니다 (사고·편집후기①29.11.삼천리3)

ㄴ. 병을 치료하기는 고사하고 (소식⑧24.12.개벽54)

단발할 생각을 두기는 몇해 전이 엇습니다 (설문②28.12.별건곤16)

氏は 中國의 前途에 우려를 품기는 하엿스나 (소식①29.11.삼천리3)

(35)는 각각 격조사와 보조사가 사용된 예이다. (35ㄱ)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35ㄴ)에서는 보조사 ‘-는’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예문에서 조사는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이어서 살펴보자.

(36)ㄱ. 당신하고 말하기가 실혀서 그랫겠서요 (세대비평②26.11.별건곤1)

당신하고 말하기 실혀서 그랫겠서요

ㄴ. 단발할 생각을 두기는 몇해 전이 엇습니다 (설문②28.12.별건곤16)

\*단발할 생각을 두기 몇해 전이 엇습니다

(36ㄱ)은 주격조사 ‘-가’가 사용된 예문에 격조사를 생략한 문장이다. 무리 없이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36ㄴ)에서 보조사 ‘-는’의 경우는 생략이 되면 비문이 되어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이처럼, ‘-기’ 명사화 구성의 조사의 생략은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수의적인 현상이다.

‘-기’ 명사화 구성에서는 아예 조사가 생략된 채 나타나는 예문을 살펴볼 수도 있다.

- (37) 아귀적 아귀적 하는 꼴 보기 시혁요 (세태비평②21.12.개벽18)  
간단한 지면으로는 도저히 詳述하기 곤란하다 (논설①28.12.별건곤16)  
울며 불며 반항하면 도로혀 집행하기 쉬우나 (잡저③29.06.삼천리1)

(37)은 조사 없이 주어<sup>26)</sup>로 나타나는 예이다. 이처럼 ‘-기’ 명사화 구성은 조사가 생략되기도 쉽고, 생략된 채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는 이러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것은 각 명사화 구성의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성희(1994)에 따르면, ‘-(으)ㄴ’ 명사화 구성의 경우 문어적 성격이 강하다. 반대로 ‘-기’ 명사화 구성은 구어적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구어적 성격이 강한 특성이 주격조사를 생략해도 자연스럽게 문장이 성립하도록 도왔던 것이다. 문어적 성격이 강한 ‘-(으)ㄴ’ 명사화 구성은 주격조사를 생략하기 어렵게 된다.

## (2) 목적어

‘-기’ 명사화 구성은 목적어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때, 주로 목적격 조사 ‘-을/를’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26) 1920년대 잡지의 ‘-기’ 명사화 구성에서 특이한 것은 ‘-기’가 아닌 ‘-키’의 형태가 종종 나타나는 것이다. ‘-키’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ㄱ. 찬물에 손씻기가 실으닛가 (회고·수기③29.12.별건곤24)  
ㄴ. 경제학의 원리 원칙을 타 과학 연구에 무리 인용키는 불능할지니 (논설③22.12.개벽30)  
ㄷ. 그 결과는 아즉 말키 어려우나 (문예기타②29.11.삼천리3)

ㄱ은 주격 조사 ‘-이/가’, ㄴ은 보조사 ‘-는’이 결합하여 나타난 예이고, ㄷ은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난 예이다. 여기에서 ‘-기’ 명사화 구성에서처럼 조사가 결합하거나 수의적으로 생략되는 경우 모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에 나타난 ‘손(을)씻다’, ‘인용하다’, ‘말하다’ 와 같이 ‘-키’ 형태가 된 ‘-기’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 ‘-기’와 결합하는 용언이 어간 말음에 ‘ㅎ’을 가지거나 ‘-하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난 ‘ㅎ’이 명사화 어미 ‘-기’와 결합하며 축약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주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38) 구름은 얇어지기를 시작하였으나 (회고·수기①22.12.개벽30)  
 그곳에 永住하기를 결심하고 (회고·수기②27.12.별건곤10)  
 나는 여기에 기록하기를 피합니다(회고·수기①29.11.삼천리3)

(38)은 목적어로 나타난 ‘-기’ 명사화 구성이다.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적격 조사도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 (39) 구름은 얇어지기를 시작하였으나 (회고·수기①22.12.개벽30)  
 구름은 얇어지기 시작하였으나

(39)는 예문의 목적격 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 명사화 구성에서는 목적격 조사도 수의적으로 생략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아예 조사가 없는 예문도 나타난다.

- (40) 生活を 豊足히 하기 爲해야 (논설②20.06.개벽1)  
도라다니기 잘하고 먹기 잘하고 (대담·좌담①25.08.개벽62)  
 친우(親友)나 대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였다 (대담·좌담①26.11.별건곤1)  
 오직 時體遊郎의 嗜好性에 맞추기 爲해야 (논설① 29.11.삼천리3)

(40)처럼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지 않고 목적어<sup>27)</sup>로 ‘-기’ 명사화 구성이 나타나는 예문도 있다. 이렇게 ‘-기’ 명사화 구성이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문어적 성격보다 구어적 성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28)</sup> 그에 비해 조사를 생략

27) 목적어에서도 ‘-키’ 형태인 ‘-기’명사화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ㄱ. 美國 여성들은 아히 나키를 꺼려 한다드군요 (대담·좌담②29.11.삼천리3)  
 ㄴ. 인간은 병알키 위하여 낫다 가는 모양이다 (세태비평②25.08.개벽62)  
 ㄷ. 내가 노래키 조와해 (문예평론①27.12.별건곤10)

ㄱ은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한 예문이고, ㄴ과 ㄷ은 이것이 생략되어 목적어로 기능한 예문이다. ‘-기’ 명사화 구성에서 나타나듯, ‘-키’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또한, ‘낫다’, ‘병(을)알다’, ‘노래하다’ 등 용언 어간 말음에 ‘ㅎ’이 있거나, ‘-하다’인 용언이 명사화 어미 ‘-기’와 결합하여 축약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예시가 거의 없는 ‘-(으)ㄴ’명사화 구성의 경우 문어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 (3) 부사어

다음은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기’ 명사화 구성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부사어로 기능하게 되면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게 된다. 주로 ‘-에’, ‘-(으)로’, ‘-와/과’, ‘-보다’를 사용한다. 먼저 ‘-에’와 ‘-(으)로’의 예문이다.

- (41)ㄱ. 생을 요구하기에 世上에서 무엇보다 더 大하고 (논설⑤20.06.개벽1)  
오늘에야 병이 나온 듯하기에 드리오노라고 (소식⑦29.12.별건곤24)  
일치점을 발견하기에 노력하는 것이외다 (회고·수기①29.11.삼천리3)  
ㄴ. 나는 11월 5일에 출발하기로 되었습니다 (회고·수기①22.12.개벽30)  
大審院에 籍을 두기로 작정하엿습니다 (회고·수기②27.12.별건곤10)  
전문학교라도 하나 세우기로 하고 (설문①29.06.삼천리1)

(41ㄱ)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한 예이고, (41ㄴ)은 부사격 조사 ‘-(으)로’와 결합한 경우이다. (41ㄴ)의 ‘-기’ 명사화 구성은 주로 해당 행위의 약속, 결정의 의미를 지니며 ‘-기(으)로 하다’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 (42) 예문 없음.<sup>29)</sup>

‘-기’ 명사화 구성은 원래 부사격 조사 ‘와/과’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1920년대 잡지 목록에서는 그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은 ‘-보다’의 예문이다.

28) 전성희, 「개화기 국어의 명사화 연구: 개화기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22.

29) ㄱ. 하늘에 별 따기와 같다.

ㄴ. 시험이 코앞일 때 공부하기와 같이 어려운 일은 없다.

ㄱ의 예문은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부사격 조사 ‘-와’가 사용되는 예이고, ㄴ의 예문은 ‘-와 같이’가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ㄱ의 경우 같다, 다름없다 등의 서술어가 주로 붙는다.

(43) 남을 구경하기가 洞里사람 만나기보다 쉬운 까닭에 (논설⑧ 21.12.개벽18)  
 富者が 天堂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아가기보다 더 어렵다 (세  
 태비평⑩27.12.별건곤10)  
壯絶慘絶하다기보다 간이 말나드는 것 갖기도 하다 (기행문①29.06.삼천리  
 1)

(43)은 부사격 조사 ‘-보다’가 ‘-기’ 명사화 구성에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  
 우이다. 한편 ‘-기’ 명사화 구성이 부사어로 사용될 때, 명사화 구성에 직접 격조  
 사가 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래 이어지는 문장을 살펴보자.

(44)ㄱ. 기상종이 울니기 전에 요사히 갓흐면 5시경에 깨워집니다 (설문④  
 28.12.별건곤16)  
착륙되기 전에 發動機를 함부로 고쳐 보느라고 주물렀습니다 (회고·수  
 기①22.12.개벽30)  
 그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노래나 하나하게 하여 달라고 (논설  
 ⑥24.12.개벽54)

ㄴ. 누구는 無方針하게 事業을 做成하기 때문에 成功치 못하얏느니 (논설  
 ⑦20.06.개벽1)  
 자본이 적은 공장은 자금의 운전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붕괴된다  
 (논설④22.12.개벽30)  
 선고가 내렸기 때문에 어머니 좇차 본척할 수가 없게까지 되엿습니다  
 (회고·수기⑤28.12.별건곤16)

(44ㄱ)와 (44ㄴ)는 ‘-기’ 명사화 구성에 직접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아  
 니라, 명사 ‘전’과 ‘때문’에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는 경우이다. (44ㄱ)는 ‘-기’  
 명사화 구성과 ‘전’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이고, (44ㄴ)는 ‘-기’ 명사화 구성과  
 ‘때문’이 함께 부사어로 기능한다. 이렇게 문장성분이 되는 경우는 ‘-(으)ㄴ’ 명사  
 화 구성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부사어로 ‘-기’ 명사화 구성이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아래 이어진 예문을 보자.



(45) 외국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조선에는 공업이 업는 나라이니 (논설② 25.08.개벽62)

베도벤은 엽헤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나는 벌써 그의 장송행진곡을 작곡하여 두엇소」 라고 말하면서 (잡저②26.11.별건곤1)

(45)는 겹으로 보기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결합한 목적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 예문에서 ‘-기’ 명사화 구성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수식하는 부사어<sup>30)</sup>의 역할을 하고 있다.

### 3.2.2. ‘-기’ 명사화 구성의 제약 양상

‘-기’ 명사화 구성도 상위문장 서술어, 시제어미, 높임법에서 제약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명사화 어미 ‘-기’에 관련한다. 1920년대 잡지의 예문을 통해 양상을 살펴보자.

#### (1) 상위문장 서술어 결합

명사화 어미 ‘-기’는 주로 ‘기대, 계속, 시행,<sup>31)</sup>’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결합한다. ‘생각’<sup>32)</sup>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나, ‘평가, 이다’류, ‘+없다’류<sup>33)</sup>, ‘하다’가 쓰이기도 한다. 이 중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30) 부사어에서도 ‘-기’ 명사화 구성이 ‘-키’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ㄱ. 낙망을 하는 사람이 만키에 그렇치 (설문①28.12.별건곤16)
- ㄴ. 晩年에 그 子孫의 老養을 受키로 目的하고 (논설②20.06.개벽1)
- ㄷ. 그는 발길을 應當 僧院에 드리노키 전에 그런 곳으로 몬져 옴기엇슬 것이다 (논설②29.11.삼천리3)
- ㄹ. 아모런 근심도 건드리지 안키 때문에 향락적 거미줄이 끼는 거와 가튼 것이다 (논설②26.08.개벽72)

ㄱ과 ㄴ은 부사격 조사 ‘-에’, ‘-(으)로’가 결합한 예문이고 ㄷ과 ㄹ은 ‘-기’ 명사화 구성과 함께 나타난 명사 ‘전’과 ‘때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이다. ‘-기’의 예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 31) 서은아, 「현대 국어 풀이씨의 이름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37.
- 32) 서은아, 「풀이씨 이름법 씨끝 ‘-로, -기’의 변화 양상」, 『한말연구』10, 한말연구학회, 2002, p.93.
- 33) 홍종선, 「국어학의 이해 명사화」, 『새국어생활』14, 국립국어연구원, 2004, p. 179.

록 하자.

- (46)ㄱ. 이 地境에 들기를 切願하는 것뿐이다 (논설② 21.12.개벽18)  
사업이 완성되기를 비는 바이다 (소식①29.12.별건곤24)  
ㄴ. 태평양 연안에 진출하기를 작정하였다 (논설①23.12.개벽42)  
열매를 살며 먹기 시작하였스니 (문예기타①26.08.개벽72)  
그곳에 永住하기를 결심하고 (회고·수기②27.12.별건곤10)

(46)은 기대, 시행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사용된 예이다. (46ㄱ)에서 기대를 나타내는 ‘절원하다, 빌다’가 나타났고, (46ㄴ)에서 ‘작정하다, 시작하다, 결심하다’ 등 시행의 의미를 드러낸다. ‘시작하다’의 경우 주로 ‘-기 시작하다’와 같이 나타난다.

- (47)ㄱ. 피해의 범위를 周知하기가 어렵다 (사고·편집후기①26.08.개벽72)  
간단한 지면으로는 도저히 詳述하기 곤란하다 (논설①28.12.별건곤16)  
ㄴ. 출생율이 역시 감퇴되리라고도 추측키 용이하다 (논설②26.08.개벽72)  
사형수가 울며 불며 반항하면 도로혀 집행하기 쉬우나 (잡저③29.06.삼천리1)

한편 (47)은 평가를 나타내는 서술어이다. (47ㄱ)에서 ‘어렵다’와 ‘곤란하다’가, (47ㄴ)에는 ‘쉽다’와 ‘용이하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렵다, 쉽다’ 외에도 서술어가 또 있다. 아래를 보자.

- (48)ㄱ. 양복쟁이 신사의 엄통은 더 보기가 실타 (세태비평②25.08.개벽62)  
찬물에 손숫키가 실으닛가 (회고·수기③29.12.별건곤24)  
ㄴ. 漢江의 月夜는 조키는 좃타 (세태비평②25.08.개벽62)  
셋재로 보기 조와야하고 (문예기타⑥29.12.별건곤24)

‘싫다’와 ‘좋다’가 그것이다. (48ㄱ)에서는 ‘싫다’가 사용되었고, (48ㄴ)에서는

‘좋다’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좋다, 싫다’ 또한 평가를 나타내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49) 결의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논설③23.12.개벽42)

금전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안니라 (설문③28.12.별건곤16)

자기의 꾀는 野慾을 채우기 위하여 (문예평론①29.06.삼천리1)

생각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표적인 경우는 ‘위하다’이다. 1920년대 잡지에서 (49)처럼 조사가 생략된 ‘-기 위하다’ 등의 형태<sup>34)</sup>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도 조사가 생략된 ‘-기 시작하다’, ‘-기 위하다’, ‘-기 짝이 없다’ 등의 형태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명사화 어미와 서술어 사이에 어떠한 요소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형태론적 구성으로 굳어져 가는 경향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sup>35)</sup>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는 ‘이다’류 나 ‘+없다’류에서 사용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어지는 예문을 살펴보자.

(50)ㄱ. 이 땅에서 죽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논설⑧ 21.12.개벽18)

ㄴ. 드르매 분하기 짝이 업서 (소식⑧25.08.개벽62)

거죽으로는 약하기 짝이 업습니다만 (소식⑦28.12.별건곤16)

(50ㄱ)은 ‘이다’ 서술어가 사용된 예로, ‘때문이다’를 볼 수 있다. (50ㄴ)은 ‘+없다’의 예이다. 현대국어에서도 자주 쓰이는 ‘-기 짝이 없다’ 형태가 자주 나타났다.

(51) 道德, 宗教의 모든 것의 制限을 무서워하기는 하였습니다 (문예평론②)

34) ‘-기’ 명사화 구성은 조사가 생략되거나, 조사가 직접 결합하지 않고 특정 의존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기 위하다’ ‘-기 짝이 없다’, ‘-기 시작하다’ 등 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기 전에’ ‘-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의존명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예이다. 이러한 형태는 현대국어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 굳어진 표현처럼 쓰이고 있다.

35) 서은아, 「현대 국어 풀이씨의 이름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86.

21.12.개벽18)

다행이 경찰서 덕분에 차기는 하얏스나 (소식④23.12.개벽42)

저는 기혼자이닛가 걱정은 적기는 하지요 (회고·수기③28.12.별건곤16)

(51)의 ‘하다’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를 강조하는 구성에서 상위문장의 서술어가 ‘하다’로 대치되어 쓰인 경우<sup>36)</sup>이다. 본래 상위문장 서술어는 ‘무서워하다’, ‘차다’, ‘적다’이나, ‘하다’가 대신하여 강조의 의미를 부각하였다.

명사화 어미 ‘-기’는 ‘말하다’, ‘발표하다’, ‘알다’, ‘보다’, ‘발견하다’, ‘알다’ 등의 상위문장 서술어에서 제약된다. 이들은 대부분 명사화 어미 ‘-(으)ㄴ’에 결합하는 것들이다.

## (2) 시제어미 결합

명사화 어미 ‘-기’에서 시제어미는 현실법, 완결법, 미정법이 실현된다. ‘∅’, ‘-었/았-’, ‘-겠-’이 그것이다. 다만,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처럼 회상법 ‘-더-’는 결합하지 못한다. 1920년대 잡지의 예문을 살펴보자.

(52)ㄱ. 아주 민중의 잡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문⑰27.12.별건곤10)

「흙, 쓰윳트, 흙」을 꾸미기에 일심정력을 다드리지요 (대담·좌담②  
29.11.삼천리3)

ㄴ. 아모리 잘못되얏기로 창피하야 謝過文을 엇더케 낸담 (논설②27.12.별건  
곤10)

朝鮮의 宮中府中은 도로 침침 漆夜되엿기에 於心歡喜 甯것더니 (문예  
기타②28.12.별건곤16)

(52)는 각각 현실법과 완결법이 결합한 예이다. (52ㄱ)는 현실법 ‘∅’이 결합하여 나타나고, (52ㄴ)는 완결법 ‘-었/았-’이 나타난다. (52ㄴ)의 경우 ‘- 엇/았-’이

36) 김현숙,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 43.

‘-이-’와 함께 축약되어 ‘-엿/얏-’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 그것은 나의 不正直이갯기로 取消한다 (문예평론①23.12.개벽42)

일반에는 별로 흥미업는 일이 되갯기에 여기에는 略하고 (회고·수기③  
29.11.삼천리3)

(53)은 미정법 ‘-갯-’이 결합한 예이다. 특이점 없이 명사화 어미 ‘-기’ 앞에 미정법 ‘-갯-’이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예가 찾기 어려웠다.

### (3) 높임법 결합

‘-기’ 명사화 구성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상대높임법이 실현될 수 있다.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54)ㄱ. 兪君께서 나를 맞나시기를 願치 아니하시니 (문예기타①25.08.개벽62)

학교 뒤바라지를 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회고·수기⑤28.12.별건곤16)

그만큼 여유잇는 생활을 하시기 위하여 (소식⑦28.12.별건곤16)

ㄴ. 선생을 생각하는 글을 써 달라고 청하옵기로 우편으로 들이는 대신 (문예기타①25.08.개벽62)

아모조록 보옵기를 간청하옵니다 (문예기타①26.08.개벽72)

(54ㄱ)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키’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 (54ㄴ)는 상대높임법이 적용된 예이다.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이 사용되어 높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금 현대국어에 비하면, 여러 예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 3.3. ‘-ㄴ 것’ 명사화 구성

‘-ㄴ 것’ 명사화 구성은 통어론적 관점에서 명사화 구성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관형절+내포문 명사’의 형태이나 의존명사 ‘것’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상태, 행위 등을 의미하여 관형절과 하나의 절로 기능한다. 구성 자체를 ‘-(으)ㄴ’ 명사화 구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ㄴ 것’이 ‘-(으)ㄴ’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ㄴ 것’ 명사화 구성은 범위를 확장해 나가며 현대국어에서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경우도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세 가지로 기능을 정리한다. 대신, ‘-ㄴ 것’ 명사화 구성의 제약 양상은 상위문장 서술어 결합을 제외한 시제어미, 높임법 결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3.3.1.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기능

먼저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기능을 살펴보자. ‘-ㄴ 것’ 명사화 구성은 어미에 직접 조사가 결합하여 문장성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존명사 ‘것’에 붙어 나타난다. 1920년대 잡지에서는 2000여개의 ‘-ㄴ 것’ 명사화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때에는 격조사인 ‘-이/을/에/(으)로/과/보다’와 보조사 ‘-은’이 결합할 수 있다. 이는 ‘-(으)ㄴ’ 명사화 구성과 동일하다.

##### (1) 주어

‘-ㄴ 것’ 명사화 구성은 주격 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하며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주격조사 ‘-이/가’의 예를 살펴보자.

- (55) 이 날 해를 보는 것이 여기서 처음이였습니다 (회고·수기①22.12.개벽30)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였을 것입니다 (회고·수기②  
27.12.별건곤10)

翁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소식①29.11.삼천리3)

(55)는 ‘-ㄴ 것’ 명사화 구성이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주격조사 ‘-이’가 붙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격조사 대신 보조사 ‘-은/는’이 쓰이는 예문도 있다.

(56) 朝鮮人の 다수가 생활난에 애타하는 것은 사실이겠고 (논설③22.12.개벽 30)

同色이 안이면 결혼치 안은 것은 상례이였고 (논설①28.12.별건곤16)

조선사람이 해외로 작고 흘너 나가는 것은 조흔 일입니까 (소식②29.11.삼천리3)

(56)은 (55)처럼 ‘-ㄴ 것’ 명사화 구성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예로, 주격 조사 대신 보조사 ‘-은’을 사용하고 있다. 주어에 나타난 ‘-ㄴ 것’ 명사화 구성은 ‘-기’ 명사화 구성과는 달리 조사의 생략이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조사를 생략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으)ㄴ’ 명사화 구성이 ‘-ㄴ 것’ 명사화 구성으로 대체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sup>37)</sup> 그 자리를 지금까지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아 조사 생략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 (2) 목적어

‘-ㄴ 것’ 명사화 구성은 목적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때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57) 비행기만 만드는 것을 보면 (논설①23.12.개벽42)

애핍하는 등의 惡套를 툴툴히 발휘하는 것을 보면 (논설②28.12.별건곤16)

中國人 행세를 하는 것을 양해하세요 (소식①29.11.삼천리3)

37) 최대회. 「동화 텍스트에 나타난 이름마디 연구」, 『동화와 번역』26,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p. 346.

1920년대 ‘-ㄴ 것’ 명사화 구성이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57)처럼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격조사의 생략이 거의 불가능하다.

### (3) 부사어

1920년대 잡지에서 ‘-ㄴ 것’ 명사화 구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먼저, ‘-에’와 ‘-(으)로’의 예를 살펴보자.

(58)ㄱ. 사람은 어떤 法則下에서 盲目的 運動을 하는 것에 지내지 못한다 (문예 평론② 21.12.개벽18)

이 쏘히 목적의 運用을 철저히 못하는 것에 그 缺陷이 대부분-在하다 할지라 (논설②22.12.개벽30)

성격을 선량케 하며 혹은 악케 하는 것은 교육을 잘 받고 잇는가 아니 한가 하는 것에 있다 (논설⑤24.12.개벽54)

ㄴ. 기독교를 밋는 것으로 보수라 하겠지요 (세태비평①22.12.개벽30)

모든 고초가 오즉 同族愛 人間愛에 實體가 되는 것으로 生覺하고 (회고·수기②27.12.별건곤10)

남들은 밥먹고 자는 것으로 지내는 모양이나 (기행문①29.06.삼천리1)

(58)은 ‘-ㄴ 것’ 명사화 구성이 부사어로 기능한 경우이다. (58ㄱ)는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하였고, (58ㄴ)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와/과’가 나타난 예문이다.

(59)ㄱ. 타향에 나서면 고향 생각이 처음으로 懇切하야 지는 것과 가티 고국을 생각하는 심리도 또한 그러하야 (논설②25.08.개벽62)

누가 오라는 것과 가티 반가이 차저 드러갓다 (소식①26.11.별건곤1)

「따-원」이 유기적 자연의 발전의 법칙을 발견한 것과 가티 그는 인간의 역사의 발전법칙을 발견하였다 (잡저②29.06.삼천리1)



ㄴ. 영국은 외롭은 섬에서 안자 죽으라는 것과 일반이다 (논설①23.12.개벽 42)

구걸하면서도 우리 동리에 었던 부자양반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갖다 (기행문① 24.12.개벽54)

내가 아해났는 것과 가치요 (잡저②29.11.삼천리3)

(59)는 부사격 조사 ‘-와/과’가 결합한 경우를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59ㄱ)이다. (59ㄱ)는 ‘-ㄴ 것’ 명사화 구성과 용언에서 파생된 부사가 함께 부사어로 기능하는 예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같이’가 쓰였다. 또 다른 것은 (59ㄴ)이다. (59ㄴ)는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서술어로는 ‘같다, 다름없다’ 등을 사용한다. 다음은 부사격 조사 ‘-보다’와 결합한 예문을 살펴보자.

(60) 無價의 評을 하는 것보다 實地로 우리 農村을 遍踏하야 (논설②20.06.개벽 1)

내 子息이 큰 후에 富貴를 사랑하는 것이 德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거든 (문예기타④27.12.별건곤10)

「역사의 천 「폐지」를 읽는 것보다 한 번 실물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논설②29.06.삼천리1)

(60)은 부사어로 기능하는 ‘-ㄴ 것’ 명사화 구성 예문이다. 비교 부사격조사 ‘-보다’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 3.3.2. ‘-ㄴ 것’ 명사화 구성의 제약 양상

‘-ㄴ 것’ 명사화 구성은 명사구 내포문으로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본래 관형화 어미 ‘-ㄴ’과 의존명사 ‘것’으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내포문 명사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기에 제약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상위문장 서술어에 대한 제약 또한 없다. 따라서 관형화 어미 ‘-ㄴ’에 나타나는 시제어미와 높임법만 살펴볼 수 있다.

(1) 시제어미 결합

‘-ㄴ 것’ 명사화 구성은 조사가 결합하는 내포문 명사가 아닌, 관형화 어미 ‘-ㄴ’에 시제어미가 결합하여 시제를 나타낸다. 이에는 현실법‘∅’, 완결법‘-었/았-’, 미정법‘-겠’, 회상법 ‘-더-’가 있지만 ‘-ㄴ 것’에서는 현실법만 나타난다.

(61) 因習의 頑固가 있는 것이 宜當한 일이라 하면 (논설② 21.12.개벽18)

中國을 상상하는 牡丹꽃들이 꼬치어 잇는 것은 물론이외다 (소식①29.11.삼천리3)

(61)은 1920년대 잡지에서 ‘-ㄴ 것’ 명사화 구성의 현실법이 나타나는 예이다.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경우 앞선 ‘-(으)ㄴ’이나 ‘-기’와 달리 현실법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높임법 결합

‘-ㄴ 것’ 명사화 구성의 높임법은 역시 관형화 어미 ‘-ㄴ’에 결합하여 실현된다.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하여 주체높임을 나타내는데, 1920년대 잡지에서 사용된 예를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62) 근신하시는 것이 조홀 듯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문예기타③26.11.별건곤1)

아해들 생각과 교육하시랴는데 자미와 깃뵈을 가지시는 것을 뵈오면 (설문③28.12.별건곤16)

(62)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한 예이다. 이처럼, ‘-ㄴ 것’ 명사화 구성은 높임법으로 주체높임이 나타날 수 있다. 상대높임법은 명사화 어미 ‘-(으)ㄴ’에서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 3.4 명사화 구성의 종합적 검토

명사화 구성은 ‘-(으)ㄴ’, ‘-기’, ‘-ㄴ 것’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의 경우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직접 조사에 결합하여 명사구 내포문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ㄴ 것’ 명사화 구성은 형태론적 관점이 아닌 통어론적 관점에서 명사화 구성이다. 그렇기에 형태가 관형화 구성과 같지만, 관형화 어미 ‘-ㄴ’이 결합한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 ‘것’을 취해 굳어진 형태로 쓰인다. 이때 ‘-ㄴ 것’ 명사화 구성은 어떤 상태, 행위를 의미하며 ‘관형절+것’이 함께 문장성분으로 기능한다. 이를 ‘-(으)ㄴ’ 명사화 구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명사화 구성의 변천은 ‘-(으)ㄴ’ 명사화 구성이 ‘-기’ 명사화 구성으로 교체되는 변화와 명사화 구성이 관형절을 가진 의존명사 구문으로 교체되는 변화 두 가지 방향<sup>38)</sup>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고대국어에서 명사화 구성은 ‘-ㄴ’, ‘-ㄴᄃᆞ’ 명사화가 대부분이고, ‘-ㄴ’과 ‘-기’가 드물게 나타난다.<sup>39)</sup> 현대국어의 명사화 구성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석독 구절에서는 ‘-ㄴ’, ‘-ㄴᄃᆞ’가 대부분인 것과는 달리 음독 구절에서 ‘-ㄴ’, ‘-ㄴᄃᆞ’ 명사화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결과적으로 소멸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15세기에서 명사화 구성은 주로 ‘-음/음’에 의한 것을 기반으로 하며, ‘-기’, ‘-디’, ‘-은’, ‘-을’ 명사화도 간혹 보인다.<sup>40)</sup> 이때 명사화 구성은 선어말어미 ‘-오/우-’와 결합하였는데, 그렇기에 ‘-음’과 ‘-음’이 ‘-음’과 ‘-음’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간혹 나타난 ‘-기’, ‘-디’의 경우에, ‘-기’는 명사화 어미보다는 파생 접미사로서 많이 사용되어 당시에 생산성이 낮았던 것<sup>41)</sup>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낮은 분포를 보였다. ‘-디’의 경우 정도성을 가진 감정표시 동사 가운데 일부만을 상위 서술어로 호응하는 명사화 표현으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결

38) 권재일, 『한국어 문법사』, 도서출판박이정, 1998, p. 231.

39) 홍종선, 『국어 문법사』, 아카넷, 2017, p. 302.

40) 홍종선, 위의 책, p. 654.

41) 홍종선, 위의 책, p. 655.

국 이 시기 명사화 구성은 주로 ‘-(으)ㄴ’ 명사화 구성이 분포하여 선어말어미 ‘-오/우-’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16세기에 선어말어미 ‘-오/우-’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명사화 구성의 분포가 뒤바뀌기 시작했다.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 선어말어미 ‘-오/우-’가 불규칙적으로 결합하면서 서서히 소멸하고, ‘-(으)ㄴ’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영역을 ‘-기’가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기’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명사화 어미 ‘-기’만을 취하는 상위문장 서술어가 생겨났고, 반대로 명사화 어미 ‘-(으)ㄴ’은 거기에 제약되었다. 이때,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줍/습-’도 소멸하여, ‘-(으)ㄴ’에서 객체높임법이 사라졌다.

이후 17세기에서는 계속 명사화 어미 ‘-(으)ㄴ’의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명사화 어미 ‘-기’가 사용된 ‘-기’ 명사화 구성이 증가했다는 말이다. 권재일(1998)에 따르면, 15, 16세기에 명사화 어미 ‘-기’는 주로 타동사와 동작동사에 국한하여 나타났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자동사에까지 결합<sup>42)</sup>되었다. 이런 기세는 18세기를 거쳐 19, 20세기까지 지속된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초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인 1900년대까지는 아직까지 명사화 어미 ‘-(으)ㄴ’의 분포가 조금 더 우세한 양상<sup>43)</sup>을 보인다. 즉, 현대국어의 20세기 초기 문헌은 명사화 어미 ‘-기’보다 명사화 어미 ‘-(으)ㄴ’의 출현이 더 빈번하였다<sup>44)</sup>는 것이다. 이 시기 명사화 어미 ‘-디’는 모두 ‘-기’에 합류되어<sup>45)</sup> 자취를 감췄다.

또한 17세기 이후에는 ‘-ㄴ 것’도 등장한다. 18, 19세기 매김마디를 연구한 허원욱(2014, 2017)에서 ‘-ㄴ 것’의 명사적 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 ‘-ㄴ 것’은 관형절이나, 17세기 이후 명사적 용법에 활용되는 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63) 해를 보는 것이 여긔서 처음이엿습니다 (회고·수기①22.12.개벽30)

42) 권재일, 『한국어 문법사』, 도서출판박이정, 1998, p. 233.

43) 김현숙,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p. 45-49.

위 논문에서는 20세기 초 중에서도 1900년대에 발행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들에서 명사화 구성의 분포를 확인했다. 그 결과 약 2배 정도의 차이로 ‘-(으)ㄴ’ 명사화 구성의 분포가 ‘-기’ 명사화 구성의 것보다 우세한 양상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44) 홍종선, 『국어 문법사』, 아카넷, 2017, p. 1034.

45) 권재일, 위의 책, p. 229.

예문 (63)에서 ‘보는 것’은 ‘-(으)ㄴ’으로 바꾼 ‘봄’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사적 용법의 ‘관형절+것’은 어떤 대상이 아닌 어떠한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는 ‘-ㄴ 것’ 명사화 구성으로, ‘-(으)ㄴ’ 명사화 구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어서 1920년대 잡지에서 확인한 20세기 초 명사화 구성의 분포를 표46)로 만든 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때, 각 잡지별 양상과 13종잡지를 종합한 분포를 구분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잡지별 명사화 구성 분포에서 『개벽』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4> 명사화 구성 분포 『개벽』

연도	명사화 어미	‘-(으)ㄴ’	‘-기’	‘-ㄴ 것’
개벽1	1920. 06.	337	111	94
개벽18	1921. 12.	279	190	187
개벽30	1922. 12.	286	104	112
개벽42	1923. 12.	165	144	121
개벽54	1924. 12.	135	129	127
개벽62	1925. 08.	124	159	138
개벽72	1926. 08.	150	189	214
합계		1476	1026	993

<표4>은 잡지 『개벽』에서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920년 6월 25일 첫 발행을 시작으로 1926년 8월 1일에 20년대의 마지막 잡지가 발행되었다. 총 72권, 그 중에서 각 년도 별로 한 권씩 분석하여 7권의 잡지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잡지에서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총 합계를 살펴보면 1476개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인 것은 ‘-(으)ㄴ’이다. 하지만, ‘-기’와 ‘-ㄴ 것’ 또한 각각 1026개, 993개로 적은 수는 아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1925년도 이후에는 ‘-기’의 개수가 ‘-(으)ㄴ’의 개수보다 많아지고 있고, ‘-(으)ㄴ’의 개수와 ‘-ㄴ 것’의 개수가 반비례가 관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전의 국어에서는 ‘-(으)ㄴ’의 사용

46) 이번 연구에서는 명사화 구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는 1920년대 잡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ctrl+f’ 기능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기’의 사용보다 빈번하였으나, 20년대 이후로 ‘-기’의 사용이 ‘-(으)ㄴ’을 추월할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ㄴ 것’이 ‘-(으)ㄴ’의 대체로서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명사화 구성 분포 『별건곤』

연도	명사화 어미	‘-(으)ㄴ’	‘-기’	‘-ㄴ 것’
별건곤1	1926. 11.	115	139	127
별건곤10	1927. 12.	135	243	355
별건곤16	1928. 12.	169	302	271
별건곤24	1929. 12.	127	181	198
합계		546	865	951

<표5>은 잡지 『별건곤』에서 명사화 구성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926년 11월 1일 첫 발행된 것을 시작으로 1929년 12월 1일까지 20년대에는 24권이 나왔다. 이 역시 년도 별로 총 4권을 분석했다.

『별건곤』에서는 『개벽』에서의 양상이 계속된다. ‘-(으)ㄴ’에 비해 ‘-기’의 우세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ㄴ 것’은 『별건곤』 전체에서 ‘-(으)ㄴ’이 낮아지는 만큼 많아지고 있다. 그에 비해 ‘-(으)ㄴ’은 ‘-ㄴ 것’이 우세하는 만큼 분포가 축소함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27년, 29년 12월 등 세 명사화 구성 중에서 ‘-ㄴ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도 보인다. 즉, 이전 국어에 비해 ‘-기’와 ‘-ㄴ 것’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6> 명사화 구성 분포 『삼천리』

연도	명사화 어미	‘-(으)ㄴ’	‘-기’	‘-ㄴ 것’
삼천리1	1929. 06.	86	97	116
삼천리3	1929. 11.	69	113	109
합계		155	210	225

<표6>은 잡지 『삼천리』에서 명사화 구성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삼천리』는 1929년 6월 25일 발행을 시작으로 20년대에는 1929년 11월까지 3권이 나

왔다. 양 끝에 발행된 1호와 3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불과 5개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명사화 구성의 양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여전히 ‘-기’와 ‘-ㄴ 것’은 ‘-(으)ㄴ’에 비해 많은 개수를 보인다. ‘-(으)ㄴ’은 앞서 살펴본 『개벽』이나 『별건곤』에서와 같이 꾸준히 개수가 적어지고 있다.

<표7> 명사화 구성 분포 종합<sup>47)</sup>

연도	명사화 어미		‘-기’		‘-ㄴ 것’	
	‘-(으)ㄴ’	‘-기’	‘-기’	‘-기’	‘-ㄴ 것’	‘-ㄴ 것’
개벽1 1920. 6.	337	62	111	21	94	17
개벽18 1921. 12.	279	43	190	29	187	29
개벽30 1922. 12.	286	57	104	21	112	22
개벽42 1923. 12.	165	38	144	34	121	28
개벽54 1924. 12.	135	35	129	33	127	32
개벽62 1925. 08.	124	29	159	38	138	33
개벽72 1926. 08.	150	27	189	34	214	39
별건곤1 1926. 11.	115	30	139	37	127	33
별건곤10 1927. 12.	135	18	243	33	355	48
별건곤16 1928. 12.	169	23	302	41	271	37
삼천리1 1929. 06.	86	29	97	32	116	39
삼천리3 1929. 11.	69	24	113	39	109	37
별건곤24 1929. 12.	127	25	181	36	198	39
합계(%)	2177	34	2101	33	2169	34

<표7>은 1920년대 잡지에 나타난 분포를 모두 종합하고 비율까지 나타낸 표이다. 이전에 1900년대 대한매일신보의 명사구 내포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48)</sup>에서는 아직까지 ‘-(으)ㄴ’이 우세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1920년대 잡지에서 총합계는 ‘-(으)ㄴ’과 ‘-기’가 각각 2177개, 2101개로 거의 차이나지 않았다.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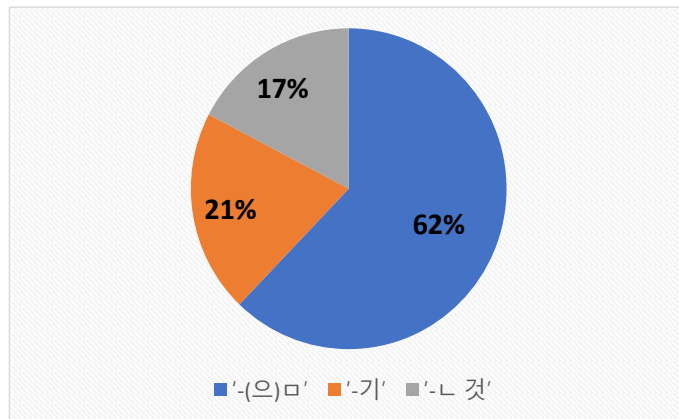
47) 명사구 내포문의 분포는 1920년대 잡지 자료를 대상으로 ‘ctrl+f’ 기능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분류했다. 대상 잡지의 종류, 호에 따라 수록된 기사의 종류와 길이, 개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논설, 문예비평, 소식, 세대비평 등 총 15권의 잡지를 통틀어 오백여개의 글을 분석할 수 있었다.

48) 김현숙,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 48.

위 논문에서는 ‘-ㄴ 것’ 명사화 구성을 제외한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의 양상을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 총 합계에서 ‘-(으)ㄴ’ 명사화 구성이 5,268개 나타났고, ‘기’ 명사화 구성이 3,091개 나타났다. ‘-(으)ㄴ’ 명사화 구성이 여전히 높은 분포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것' 또한 2169개로 앞선 두 명사화 구성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25년을 기점으로 하여 분포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5년 이전은 '-(으)ㄴ'이 가장 우세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5년 이후는 '-기'와 '-ㄴ 것'이 1, 2위를 다투며 우세한 양상이다. 그에 비해 '-(으)ㄴ'은 급격히 낮아진다. 이러한 이들의 분포는 서로의 영향 관계 안에 있었다. 아래부터는 이들 간의 관계 변화를 초기 20년, 중기 25년, 말기 29년 셋으로 나눈 그래프와 <표7>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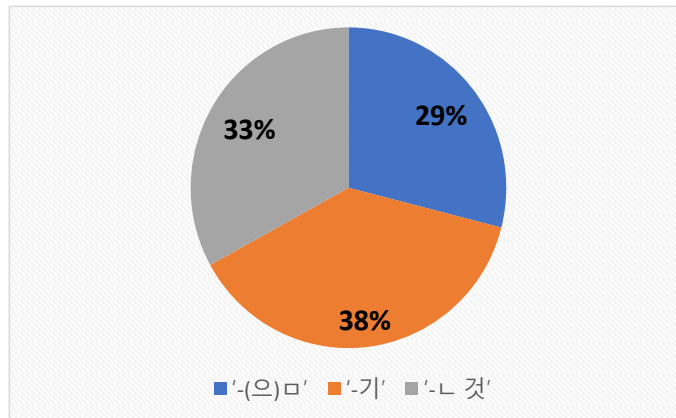


<그림1> 『개벽』 1호 명사화 구성 비율

<그림1>은 25년 이전 1920년대 잡지 『개벽』 1에서 세 명사화 구성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체에서 '-(으)ㄴ'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년에서 24년에 이르기까지 '-(으)ㄴ'은 각각 337, 279, 286, 165, 135개가 나타났는데, 이때 '-(으)ㄴ'의 분포는 세 명사화 구성 중 가장 높다. 그러나 꾸준히 개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와중에 '-(으)ㄴ'이 낮아지는 만큼 '-ㄴ 것'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으)ㄴ'의 자리를 '-ㄴ 것'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때 '-기' 또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와 '-ㄴ 것'은 이때까지 '-(으)ㄴ'을 뛰어넘을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흐름이 뒤바뀌는 것은 25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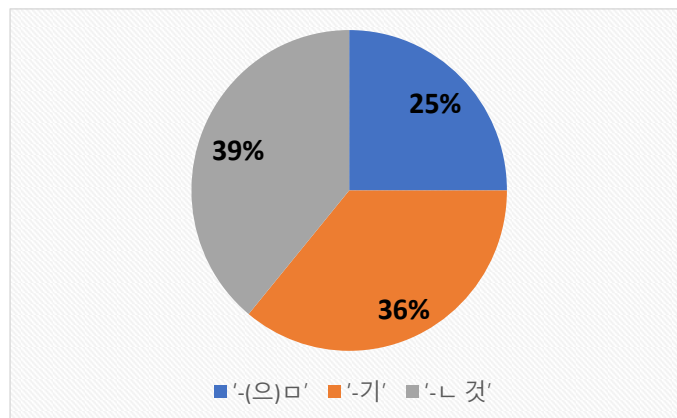
이어서, 분포의 흐름이 뒤바뀌는 시점인 25년에서 나타난 세 명사화 구성의 비율을 확인해 보자.





<그림2> 『개벽』 62호 명사화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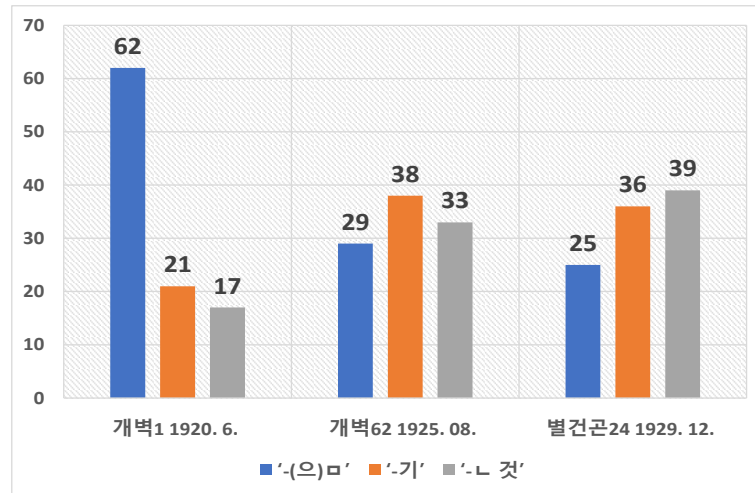
<그림2>는 1925년 발행된 『개벽』 62에 나타난 세 명사화 구성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개벽』 1과 비교하면 ‘-(으)ㄴ’의 비율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그에 비해 ‘-ㄴ 것’은 이전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높아져 ‘-(으)ㄴ’을 뛰어넘었다. 이때부터 ‘-기’도 ‘-(으)ㄴ’을 계속 넘어선 개수인 159, 189, 139, 302, 97, 113, 181개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2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다. 아래의 그래프를 이어서 보도록 하자.



<그림3> 『별건곤』 24호 명사화 구성 비율

<그림3>은 1929년 발행된 『별건곤』 24에 나타난 세 명사화 구성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바는 ‘-기’까지 뛰어넘은 ‘-ㄴ 것’의 비율이다. 하지만 ‘-기’도 낮은 편이 아니다. 25년 이후로 ‘-기’와 ‘-ㄴ 것’은 변갈아가며 가장 높은 개수로 나타났다.<sup>49)</sup> 오히려 가장 낮은 것은 ‘-(으)ㄴ’였다. 25년 이

후 꾸준히 쓰임이 둔화된 ‘-(으)ㄴ’은 1920년대 말에 이르러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고, 반대로 ‘-ㄴ 것’은 꾸준히 증가하여 ‘-기’와 1, 2위를 다투는 정도의 분포를 나타냈다.



<그림4> 1920년대 명사화 구성 비율 종합

마지막으로 명사화 구성의 비율을 종합하여 비교한 <그림4>를 살펴보면 세 명사화 구성의 분포 양상 관계를 정리한다. <그림4>에서 ‘-기’는 25년에 증가한 이후 비교적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이며 29년까지 나타난다.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으)ㄴ’과 ‘-ㄴ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 양상이다. ‘-(으)ㄴ’은 20년에 가장 높았다가 25년부터 다른 명사화 구성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ㄴ 것’은 ‘-(으)ㄴ’의 반대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29년에 ‘-(으)ㄴ’은 더 낮아졌고, ‘-ㄴ 것’은 그 만큼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으)ㄴ’이 ‘-ㄴ 것’으로 대체되며 축소되고, ‘-(으)ㄴ’을 대체한 ‘-ㄴ 것’은 영역을 넓혔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20년대의 ‘-기’는 2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으)ㄴ’보다 높은 개수로 나타났으며, ‘-ㄴ 것’은 ‘-(으)ㄴ’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여 ‘-(으)ㄴ’이 둔화되는 만큼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다. ‘-ㄴ 것’이 ‘-(으)ㄴ’을 대체하여 명사화 구성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49) 이는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년도에서 가장 많은 개수가 나타난 명사화 구성을 색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기’와 ‘-ㄴ 것’은 25년을 기점으로 번갈아가며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으)ㄴ’은 2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1920년대 명사화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 것에 대해 정리하면 기능, 제약 양상, 분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에 관하여 세 명사화 구성은 모두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문장 성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격조사나 보조사가 결합하여 실현된다. 이때,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에 직접 조사가 붙어 실현된다.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경우 관형화 어미 ‘-ㄴ’에 따라오는 의존명사 ‘것’이 조사와 함께 결합해 문장성분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 ‘-기’ 명사화 구성은 표기상 특성을 가지기도 하는데, 명사화 구성 내 어간과 어미의 축약 그리고 조사의 수의적 생략이 그것이다. 먼저 명사화 구성 내 어간과 어미의 축약은 ‘-기’로 표기되는 일반적인 ‘-기’ 명사화 구성과는 달리 ‘-키’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명사화 어미 ‘-기’와 접하는 어간 말음에 ‘ㅎ’이 있거나, ‘-하다’류 동사일 경우 발생한다. ‘-기’의 ‘ㄱ’과 어간의 ‘ㅎ’이 축약하여 ‘키’가 되어 나타나는 격음화를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장성분, 상위문장 서술어, 실제발음에는 관계없이 나타난다.

또한, ‘-기’ 명사화 구성은 수의적으로 조사가 생략 가능하여 조사 없이 사용된 예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조사의 생략은 같은 명사화 구성인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상으로 구어적 특성을 가진 ‘-기’ 명사화 구성과는 달리 ‘-(으)ㄴ’ 명사화 구성은 문어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어적 특성으로 조사의 생략이 가능한 ‘-기’ 명사화 구성은 ‘-기 위하다’ 등 조사가 생략된 채 기능하는 구조가 굳어져 사용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가 직접 결합하지 않고 의존명사가 결합하여 굳어진 ‘-기 전에’, ‘-기 때문에’의 형태도 많이 나타났다. ‘-기 전에’와 ‘-기 때문에’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에 의해 제약이 결정된다. 상위문장 서술어 제약, 시제어미 제약, 높임법 제약 세 가지가 있다. 다만, 통어론적 관점에서 명사화 구성인 ‘-ㄴ 것’의 경우는 시제어미 제약과 높임법 제약 측면에서만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의 상위문장 서술어 제약에 관해 살펴보았다. 두 명사화 구성은 16세기 ‘-기’가 분포를 확장하며 바뀌기 시작했다. ‘-(으)ㄴ’ 명사화 구성만이 결합할 수 있는 상위문장 서술어가 ‘-기’ 명사화

구성을 제약하거나, 그 반대가 되기도 했다. 즉, 두 명사화 구성이 결합하는 상위 문장 서술어에서 보완적인 관계로 공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명사화 구성의 제약을 받는 상위문장 서술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명사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는 상위문장 서술어는 ‘시작하다’, ‘위하다’, ‘쉽다’나 ‘-기 짝이 없다’ 등의 ‘+없다’류 등이 있다. 위 상위문장 서술어는 ‘-기’ 명사화 구성에만 결합할 수 있다. 특히 ‘-기 시작하다’, ‘-기 위하다’, ‘-기 짝이 없다’의 형태로 특정 표현이 형태론적 구성으로 굳어져 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명사화 어미 ‘-기’는 ‘미안하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서술어, ‘분명하다’ 등 평가를 나타내는 서술어에 제약된다. 또한, ‘보다’ 등 감각을 나타내는 서술어나 ‘발견하다’ 등 인지를 나타내는 서술어, ‘말하다’ 등 담화를 나타내는 서술어, ‘이다, 있다, 없다’ 등에서 제약된다. 이는 명사화 어미 ‘-(으)ㄴ’에 결합하는 것이다. 또한 두 명사화 어미는 ‘바라다’ 등 요구를 나타내는 서술어나, ‘좋다’, ‘이다’ 류 등에서는 모두 결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제어미는 현실법‘∅’, 완결법‘-었/았-’, 회상법‘-더-’, 미정법‘-겠-’ 네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의 경우 회상법 ‘-더-’의 결합만 제약된다. 미정법 ‘-겠-’은 두 명사화 구성에서 예문을 찾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예만 확인 가능했다. ‘-ㄴ 것’ 명사화 구성의 경우 현실법만 결합한다.

마지막은 높임법이다. 높임법은 선어말어미의 결합으로 실현된다. 그렇기에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줍/습-’은 소멸한 이후 결합하지 않았다. 결국 남아있던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로 실현되는 주체높임법과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으로 실현되는 상대높임법만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기’ 명사화 구성의 경우 두 가지 높임법이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으)ㄴ’ 명사화 구성과 ‘-ㄴ 것’ 명사화 구성은 모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만 결합된다.

세 번째는 분포 양상으로, 1920년대 이전 국어에서는 ‘-(으)ㄴ’이 가장 우세했다. 1920년에도 ‘-(으)ㄴ’은 여전히 우세했으나, 24년이 되기까지 꾸준히 감소하였고 결국 2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25년부터는 ‘-기’와 ‘-ㄴ 것’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ㄴ 것’은 ‘-(으)ㄴ’의 축소와 반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인 명사화 구성들의 비율 변화를 보

왔을 때, ‘-(으)ㄴ’이 꾸준히 감소하고 ‘-ㄴ 것’이 그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ㄴ 것’이 ‘-(으)ㄴ’을 대체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의 경우 25년 이후부터 꾸준히 많은 개수로 나타난다. ‘-(으)ㄴ’ 명사화 구성을 대체하는 것은 주로 ‘-ㄴ 것’ 명사화 구성이었고, ‘-기’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구성으로서 기능이 지속되어왔기에 ‘-(으)ㄴ’ 명사화 구성에 비해 두 명사화 구성의 분포가 현대국어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sup>50)</sup> 이렇듯, ‘-(으)ㄴ’이 ‘-ㄴ 것’으로 대체되고 ‘-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와 ‘-ㄴ 것’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분포 양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1920년대라고 할 수 있다.

---

50) 최대희, 「동화 텍스트에 나타난 이름마디 연구」, 『동화와 번역』26,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p. 358.

## 4. 1920년대 잡지의 관형화 구성

명사구 내포문의 관형화 구성은 크게 ‘-ㄴ’ 관형화 구성과 ‘-르’ 관형화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내포문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화 어미의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이다. 이들을 다시 내포문 명사의 특성에 따라 자립명사 구문과 의존명사 구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을 세분하여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 내 성분에서 빠져나온 경우인 관계화 구성, 빠져나오지 않은 온전한 문장 형태의 절을 가진 보문화 구성으로 나눈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1920년대 잡지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의 유형과 관형화 어미에 나타나는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 4.1. ‘-ㄴ’ 관형화 구성

‘-ㄴ’ 관형화 구성은 ‘-ㄴ’ 관형화 어미가 내포문 명사와 결합한 구성이 명사구로 기능하는 것이다. ‘-ㄴ’ 관형화 구성에서는 1920년대 잡지에서 확인한 관련 예문들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자립명사 구문과 의존명사 구문으로 크게 나누어 각각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의 예문을 살펴보고, 구성의 제약을 확인한다.

#### 4.1.1. 자립명사 구문

‘-ㄴ’ 관형화 구성의 자립명사 구문은 수식의 대상이 되는 내포문 명사가 자립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에서 빠져나와 구성을 이룬 경우인 관계화 구성과 빠져나오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관형절로 수식받는 보문화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1) ‘-ㄴ’ 관계화 구성

‘-ㄴ’ 관계화 구성은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 안에 속해있었으나 빠져나와 구성을 이룬다. 빠져나온 성분은 상위문장과 하위문장 모두에서 중복되는 성분이기엔 생략이 가능한 것이다. 빠져나온 문장 성분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주어가 빠져나온 경우, 목적어가 빠져나온 경우, 부사어가 빠져나온 경우를 들 수 있다.

먼저, 주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주어가 빠져나온 경우는 관형절 안에서 주어였던 명사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64) 본지를 넘으시는 독자가 모다 편집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사고·편집후기 ②28.12.별건곤16)

-> [(독자가) 본지를 넘으시는] 독자가 모다 편집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64)는 주어가 빠져나온 ‘-ㄴ’ 관계화 구성으로, 자립명사 ‘독자’가 사용되었다. 관형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던 ‘독자’가 빠져나와 상위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65) 數餘種에 多數한 宗派가 나타났다. (세태비평①20.06.개벽1)

勞働者가 저녁밥을 爲하야 곱흔 배를 억지로 참고 (논설③21.12.개벽18)

착륙하는 樣을 보고 (회고·수기①22.12.개벽30)

토막토막 들리는 가슴을 찢는 소리가 있다 (문예기타①24.12.개벽54)

위의 (65)는 1920년대 잡지에서 확인한 주어가 빠져나온 관계화 구성의 예이다. 각각 ‘종파’, ‘배’, ‘기(樣)’, ‘소리’가 관형절에서 빠져나와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목적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관형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던 명사가 빠져나오게 된다. 다음과 같은 예를 확인해 볼 수 있다.

(66) 부인은 사랑하는 개(犬)가 獸醫에게 撲殺을 당한 것을 슬퍼하야 (잡지① 28.12.별건곤16)

-> [부인이 (개를) 사랑하는] 개가 獸醫에게 撲殺을 당한 것을 슬퍼하야

(66)은 목적어가 빠져나온 ‘-니’ 관형화 구성이다. 목적어의 역할을 하던 ‘개’가 관형절에서 빠져나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7) 今年에 두번째 보는 눈(雪)이 솔솔 내려온다 (회고·수기②21.12.개벽18)  
실패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업는 치욕이라 (회고·수기①22.12.개벽30)  
제가 하는 잡지(雜誌)가 있는데요 (대담·좌담①26.11.별건곤1)

1920년대 잡지에서 예문을 더 살펴본 것이 바로 (67)이다. (67)에서는 ‘눈’, ‘치욕’, ‘잡지’ 등이 관형절에서 목적어로 기능했으나 내포문 명사로 빠져나왔다. 이들은 각각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1920년대 잡지에서 확인한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68) 나라 사람들의 足跡이 가지 안은 곳이 업습니다 (설문⑥28.12.별건곤16)  
->[나라 사람들의 족적이 (곳에) 가지 안은] 곳이 업습니다

(68)에서 ‘곳’은 자립명사로 관형절인 ‘족적이 가지 않은’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이 빠져나와 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예를 더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69) 출발도 전에 고장이 새기는 비행기이니 (회고·수기①22.12.개벽30)  
盜跖은 봉투도 업는 서찰을 집어들고 (문예기타①26.08.개벽72)  
손님이 한 분만 와도 안즐 자리가 업서서 (회고·수기②28.12.별건곤16)

(69)에서는 ‘비행기’, ‘서찰’,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립명사는 관형절



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여 ‘-에’ 또는 ‘-에게’와 결합했다. 관형절에서 빠져나오면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자립명사 구문에서 ‘-ㄴ’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던 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로 기능하며 동일지시 관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 (2) ‘-ㄴ’ 보문화 구성

관형절 내에 문장성분이 빠져나와 불안정한 문장을 이루는 관계화 구성과는 달리 보문화 구성은 어떤 문장성분이 중복되지 않아 온전한 형태의 문장이 내포문 명사를 수식한다. 1920년대 잡지에서 찾은 자립명사 구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70) 高永義에게 夷服之人은 不可近이라는 구실로 거절을 당한 사실이 당시 某씨 手記에 있는 것을 보면 (소식④28.12.별건곤16)  
->[高永義에게 夷服之人은 不可近이라는 구실로 거절을 당하다 + ‘-ㄴ’]  
사실이

(70)은 문장에서 ‘사실’이 내포문 명사이고, 앞에 붙은 문장이 이 사실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 주고 있다. 여기에 생략된 성분을 없다. 아래는 ‘-ㄴ’ 보문화 구성의 또 다른 예문이다.

- (71) 간신히 기체가 나가기는 하는 모양이었으나 (회고·수기①22.12.개벽30)  
착용시간보다 製服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형편이니 (설문①28.12.별건곤16)  
작업을 만히 한 까닭으로 안력이 몹시 상하야 (설문④28.12.별건곤16)

(71)은 ‘모양’, ‘형편’, ‘까닭’ 등의 자립명사가 온전한 관형절의 수식을 받아 관형화 구성을 이루었다. 관형절 내에서 생략되어 빠져나오는 성분은 따로 없었다.

#### 4.1.2. 의존명사 구문

‘-ㄴ’ 관형화 구성의 의존명사 구문은 내포문 명사로 의존명사가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서도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20년대에 나타난 예를 차례로 살펴보자.

##### (1) ‘-ㄴ’ 관계화 구성

의존명사 구문의 ‘-ㄴ’ 관계화 구성 또한 빠져나온 문장성분에 따라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예로 나눌 수 있다.

먼저 ‘-ㄴ’ 관계화 구성에서 주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72) 朝鮮사람의 苦鬪에서 키워진 것이 천도교입니다 (논설②28.12.별건곤16)

-> [(것이) 朝鮮사람의 苦鬪에서 키워진] 것이 천도교입니다

(72)에서 ‘것’은 조선사람이 키운 ‘천도교’를 의미한다. 어떤 행위나 상황, 상태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ㄴ 것’ 명사화 구성이 아닌 ‘-ㄴ’ 관형화 구성에 속한다. ‘것’은 관형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했으나,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로 문장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3)ㄱ. 제 귀 잘라먹은 이가 만흔줄로 생각합니다 (논설⑥20.06.개벽1)

기운업는 우숨을 웃는 이가 있다 (문예기타⑤26.11.별건곤1)

ㄴ. 그의 거룩한 생각을 드른 者 | 저자와 가틈으로 (논설⑤20.06.개벽1)

貨財를 소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논설⑤24.12.개벽54)

(73)은 의존명사가 주어의 역할에서 빠져나온 예이다. 주어였던 성분이 빠져나와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3ㄱ)은 의존명사 ‘이’의 예이고 (73ㄴ)은 의존명사 ‘자(者)’의 예이다.

다음은 목적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74) 선생님 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삼해 드리지요 (소식⑦28.12.별건곤16)

-> [선생님 (것을) 도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삼해 드리지요

(74)에서 ‘것’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형절 내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던 것이다. 1920년대 잡지에서 확인 가능한 목적어가 빠져나온 ‘-ㄴ’ 관계화 구성은 아래에서 더 확인할 수 있다.

(75)ㄱ. 납용하던 것을 절약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설문②28.12.별건곤16)

ㄴ. 吾人은 그로써 決코 憂慮하는 바는 안이다. (세태비평①20.06.개벽1)

부르주아 계급의 원하는 바를 가장 정직하고 독특한 수법으로 표시한 것이다 (논설⑥26.08.개벽72)

ㄷ. 아는 者는 더욱 친하고 (세태비평③20.06.개벽1)

(75)는 목적어가 빠져나온 ‘-ㄴ’ 관계화 구성이다. ‘것’, ‘바’, ‘자’ 등의 의존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에서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된다. (75ㄱ)은 ‘것’, (75ㄴ)은 ‘바’, (75ㄷ)는 ‘자’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부사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76) 시방 가는 데는 어대인가 (문예기타②28.12.별건곤16)

-> [(테로) 시방 가는] 데는 어대인가

(76)의 의존명사 ‘데’는 관형절에서 부사어로 장소의 의미를 지녔다. 이것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77) 申叔舟가 世祖에게 降伏하는 데를 그러케 쉽게 넘긴 것이 不滿足하고 (문예평론①23.12.개벽42)

한아— 革命極은 우리잇는 데를 지나가고 (소식①26.08.개벽72)

米國의 商業會社가 업는 데가 업는데 (논설①29.12.별건곤24)

(77)에서는 곳이나 장소 혹은 경우를 뜻하는 ‘데’가 관형절의 부사어 역할에서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로 나타났다. 이처럼, ‘-ㄴ’ 관계화 구성은 의존명사와 자립 명사, 둘 중 어디에도 관계없이 동일지시 관계에 있는 성분이 빠져나온다. 빠져나온 성분은 내포문 명사로 기능하게 된다.

## (2) ‘-ㄴ’ 보문화 구성

의존명사가 내포문 명사로 나타나나, 관형절 내 동일지시 대상이 없어 빠져나오는 성분이 없는 ‘-ㄴ’ 보문화 구성을 살펴본다. 예문을 하나 분석해 보자.

(78) 그가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데에 잇서서는 在來의 봉건식 행태를 그대로 발휘해야 (논설②28.12.별건곤16)

-> [그가 실제로 사람을 대하다 + ‘-ㄴ’] 데에

(78)은 별건곤 16호에서 찾아볼 수 있는 ‘-ㄴ’ 보문화 구성의 예이다. 의존명사 ‘데’가 쓰였다. 여기서 ‘데’의 의미는 ‘어떠한 일이나 것’이다. 관형절 내에 동일지시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온 성분이 없는 보문화 구성이 된다.

(79) 극단을 조직하는 데에, 數學의 방정식가튼, 一定不變한, 엇더한 요소를, 반듯 이 구비하여서 (문예평론③23.12.개벽42)

엇던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 20인의 노동자가 필요하엿섯더니 (논설⑤24.12.개벽54)

(79)는 의존명사 ‘데’의 예문을 추가로 가지고 온 것이다. 여기에서 ‘데’는 위치, 장소, 경우가 아닌 ‘일이나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관형절이 수식하는 보문화 구성이다.

(80)ㄱ. 이제 그 協會의 目的하는 바 一端을 들어보면 (논설③21.12.개벽18)

귀사에서 무르신 바 『무산문학과 민족문학과 의 합치점 及 차이점』에

대하야 (설문③29.06.삼천리1)

ㄴ. 우리도 丈夫인 바에 何必 그에게 도움만 받는다는 것이 넘우나 못생긴  
짓이 아닌가. (세태비평②21.12.개벽18)

이왕 승낙한 바에 자서전을 엮더케 지을가 (회고·수기①29.06.삼천리1)

ㄷ. 秩序의 維持에 努力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소식②22.12.개벽30)  
그대로 실행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설문⑥28.12.별건곤16)

(80)은 ‘바’의 예이다. 의존명사 ‘바<sup>51)</sup>’는 (80ㄱ)에서처럼 ‘앞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로 사용되거나 (80ㄴ)처럼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신의 주장을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80ㄴ)는 후자의 경우, ‘-ㄴ’ 보문화 구성이 되는 예이다. 이때 의존명사 ‘바’는 관형화 어미 ‘-는’만을 취하게 된다.

(81) 熱烈한 否定者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함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문예평론② 21.12.개벽18)

日鮮용화는 어대까지 주장함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소식⑤24.12.개벽54)

그는 내가 누구인 줄을 자서이 알지 못하나 (소식①26.11.별건곤1)

(81)은 의존명사 ‘줄’이 사용된 ‘-ㄴ’ 보문화 구성이다. ‘줄’은 동일지시가 없어 생략되지 않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의존명사 ‘줄’은 ‘방법이나 속셈’의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ㄴ’ 보문화 구성은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이나 자립명사이냐에 관계없이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 완전한 문장을 이룬 관형절은 내포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뿐, 내포문 명사와 동일지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51)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존명사 ‘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
2. ((어미 ‘-을’ 뒤에 쓰여)) 일의 방법이나 방도.
3. ((주로 ‘-은/는/을 바에(는)’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4. ((일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하고 ‘-는 바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주장을 단언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

#### 4.1.3. ‘-ㄴ’ 관형화 구성의 제약 양상

관형화 구성에서는 시제어미와 높임법, 내포문 명사에서 제약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관형화 어미 ‘-ㄴ’에 관련이 있다.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양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1) 시제어미 결합

‘-ㄴ’ 관형화 구성의 시제어미 결합은 관형화 어미 ‘-(으)ㄴ’의 경우와 ‘-는’의 경우 양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시제어미는 현실법 ‘∅’, 완결법 ‘-았/았-’, 미정법 ‘-겠-’, 회상법 ‘-더-’로 실현된다. 하지만, ‘-ㄴ’ 관형화 구성에서는 이들 모두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 (82)ㄱ. 서남은 광활한 평지로 소위 함흥평야를 成하여 (소식⑧24.12.개벽54)  
작업을 만히 한 까닭으로 안력이 몹시 상하여 (설문④28.12.별건곤16)
- ㄴ. 격렬하던 당쟁은 점차 浸息에 至하였다 (논설①28.12.별건곤16)  
和氣가 靄靄하던 一座는 別안간 肅殺의 氣風이 돌아든다 (문예기타②  
28.12.별건곤16)
- ㄷ. 두번째 보는 눈(雪)이 솔솔 내려온다 (회고·수기②21.12.개벽18)  
秩序의 維持에 努力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소식②22.12.개벽30)

(82)는 ‘-ㄴ’ 관형화 구성에서 시제어미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핀 것이다. (82ㄱ)와 (82ㄴ)는 관형화 어미 ‘-(으)ㄴ’의 경우이다. 현실법과 회상법이 결합하고 있다. 완결법과 미정법은 제약된다. (82ㄷ)는 관형화 어미 ‘-는’의 경우로, 현실법만 결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제약된다.

##### (2) 높임법 결합

‘-ㄴ’ 관형화 구성의 높임법은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 나타난다.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 그리고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이 결합하여 높임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 1920년대 잡지에서 찾아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83)ㄱ. 선생께서 성내시는 양을 못보았습니다. (문예기타①25.08.개벽62)  
비란하시는 이가 만홀는지도 알 수 업습니다 (설문① 28.12.별건곤16)  
본지를 넓으시는 독자가 모다 편집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사고·편집후기②28.12.별건곤16)
- ㄴ. 예문 없음.

(83)은 높임법이 결합한 1920년대 잡지 예문을 가져온 것이다. (83ㄱ)에서는 관형화 어미 ‘-ㄴ’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은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

### (3) 내포문 명사 결합

‘-ㄴ’ 관형화 구성은 내포문 명사에 제약을 가진다. 관형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제약은 의존명사의 경우와 자립명사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관형화 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관형화 어미 ‘-(으)ㄴ’, ‘-는’으로 나누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의존명사에 따른 제약 관계를 1920년대 잡지에서 찾아보자.

- (84)ㄱ. 나는 그냥 들어가는 대로 바로 착륙해 버렸습니다 (회고·수기①22.12.개벽30)  
그러한 취미는 할 수 잇는 대로 박멸케 하기 위해서 (사고·편집후기① 26.11.별건곤1)
- ㄴ. 江界面에 특별 부과금을 실시한다는 건을 취소하라는 등의 결의를 행해야 (소식⑤22.12.개벽30)  
歸宅하는 등 약속은 미국의 중류계급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실이다 (설문①28.12.별건곤16)
- ㄷ. 고뇌를 堪忍할 수 업는 중압 하에는 생활의지일지라도 파괴되는 수 잇

다 (문예기타②25.08.개벽62)

두손으로 번개불 가티 놀너도 밋쳐 당해내는 수가 업서서 (설문⑨  
28.12.별건곤16)

(84)는 관형화 어미 ‘-는’만 결합하는 의존명사이다. ‘대로’, ‘등’, ‘수’가 있다.(84ㄱ)는 대로의 예로 여기에서 ‘대로’는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시 혹은 즉즉’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의 ‘대로’는 관형화 어미 ‘-(으)ㄴ’을 제약한다.(84ㄴ)는 의존명사 ‘등’이다. 등은 관형화 어미 ‘-는’ 뒤 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84ㄷ)의 ‘수’는 ‘능력, 가능성, 경우’의 의미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경우’를 뜻하는 관형절에 붙을 때, 관형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고 ‘-는’만을 취하게 된다.

한편, 관형화 어미 ‘-(으)ㄴ’만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85)가 그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85)ㄱ. 獨立, 平等을 主張한 적이 있지 아니하되 (기행문①21.12.개벽18)

도내의 중요사항을 논의한 적이 잇섯다 (논설③23.12.개벽42)

이약이한 적이 잇든 것이 생각난다 (문예기타⑤26.11.별건곤1)

ㄴ. 간도에 들어온 지가 수십년이고 (회고·수기④28.12.별건곤16)

취직한 지가 불과 1년 반을 더 넘지 못한지라 (설문⑨28.12.별건곤16)

(85)는 관형화 어미 ‘-(으)ㄴ’만을 취하는 경우이다. (85ㄱ)의 의존명사 ‘적’은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또는 지나간 때’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정법을 담은 관형화 어미 ‘-르’도 사용될 수 있지만, 지나간 때를 의미한다면 이미 완결된 ‘-(으)ㄴ’만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5ㄴ)의 의존명사 ‘지’ 또한 관형화 어미 ‘-(으)ㄴ’만을 취한다. ‘어떤 일이 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가리키는 말로,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취하므로 완결의 의미를 가진 관형화 어미만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86)ㄱ. 폭풍이 나갈 길을 못가게 하려는 듯이 몰려왔습니다 (회고·수기①22.12.



개벽30)

바지통에 엉둥이 채 내여 노코 활발한 듯이 비죽비죽 거러가는 자들을 볼때나 (논설③28.12.별건곤16)

ㄴ. 右에도 잠간 말한 바와 가티 (논설②21.12.개벽18)

우리도 丈夫인 바에 何必 그에게 도움만 받는다는 것이 넘우나 못생긴 듯이 아닌가 (세대비평②21.12.개벽18)

秩序의 維持에 努力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소식②22.12.개벽30)

ㄷ. 역행하기 공부를 하는 양으로 사랑하기 공부를 합시다 (문예기타① 25.08.개벽62)

수척하신 양을 뵈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예기타①25.08.개벽62)

ㄹ. 有志者인 척하는 表裏相異한 태도를 버리고 (설문①28.12.별건곤16)

깜짝 놀내는 척하고 인사를 짓낸다. (문예기타⑤29.12.별건곤24)

ㄹ. 이를 보고 유지인체 짐잔은 체하고 (세대비평②25.08.개벽62)

나는 깜짝 놀라는 체하면서 (회고·수기③28.12.별건곤16)

ㅂ. 스 채로 『오라잇』 『스톱』을 목이 압흐게 부르는 것이 내 직업의 정체입니다 (설문⑨28.12.별건곤16)

금강석이 끼여진 채로 잇섯지마는 (회고·수기⑤28.12.별건곤16)

(86)의 예문들은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 둘 모두 결합하는 의존명사의 예문이다. (86ㄱ)는 의존명사 ‘듯이’의 예문이고, (86ㄴ)는 의존명사 ‘바’가 사용된 예문이다. 이어진 (86ㄷ)은 의존명사 ‘양’이 사용되었으며 (86ㄹ), (86ㄹ), (86ㅂ)는 각각 의존명사 ‘척’, ‘체’, ‘채’가 나타나 있다.

(86ㄱ)의 ‘듯이’는 관형화 어미 ‘-ㄴ’과 관형화 어미 ‘-는’이 모두 결합하지만, 특수한 결합 조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86ㄴ)의 의존명사 ‘바’ 또한 관형화 어미 ‘-ㄴ’에도 결합하는데, 이는 ‘일의 방법 혹은 방도’를 뜻하는 때에 그러하다. 그 외에 ‘앞에서 말한 내용이나 일 그 자체’를 의미하거나, ‘기회나 형편’을 의미할 때에는 관형화 어미 ‘(으)ㄴ’, ‘는’ ‘-ㄴ’ 세 경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네 번째 의미로<sup>52)</sup>, 이때에는 ‘-는 바이다’의 형태

52) [의존명사] 바 : 4. (일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하고 ‘-는 바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주장을 단언

로 고정된 채 사용되고 있다.

(86ㄷ)의 의존명사 ‘양’의 경우 관형화 어미 ‘-르’도 결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모양이나 행동을 취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향이나 의도’를 뜻한다면 관형화 어미 ‘-르’를 취하고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하게 된다.

(86ㄹ)의 ‘척’과 (86ㅁ)의 ‘체’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한다. 관형화 어미 ‘-ㄴ’과 결합하는 양상은 ‘-(으)ㄴ’과 ‘-는’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동일하다. 이들의 경우, 보조동사 ‘척하다’, ‘체하다’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관형화 어미 ‘-(으)ㄴ’, ‘-는’만을 취한다. 1920년대 잡지에서는 주로 보조동사의 형태로 쓰인 경우가 나타났다. (86ㄴ)의존명사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관형화 어미 ‘-르’만 결합할 수 없는 ‘척’과 ‘체’의 예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의존명사 중에서 관형화 어미 ‘-ㄴ’ 모두에 결합할 수 없는 예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87)ㄱ. 秩序整然히 一毫不亂함은 다못 驚異할 뿐인데 (논설⑨20.06.개벽1)

\*秩序整然히 一毫不亂함은 다못 驚異한 뿐인데

ㄴ. 합치점이 발견되지 안이할 리가 잇겠습니까 (논설②25.08.개벽62)

\*합치점이 발견되지 안이한 리가 잇겠습니까

(87)은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이 모두 결합할 수 없는 의존명사의 예이다. ‘뿐’과 ‘리가’가 있을 수 있다. (87ㄱ)는 ‘뿐’의 예이고, (87ㄴ)는 ‘리가’의 예이다. 이들 의존명사는 앞에 관형화 어미 ‘-ㄴ’을 결합시켰을 때, 비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자립명사에서 관형화 어미 결합 제약을 살펴보자. 자립명사에 어떤 관형화 어미가 제약되는지는 그 자립명사의 의미에 담긴 시제에 따라 결정된다.

(88) 우리의 상식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소식②26.11.별건곤1)

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

\*우리의 상식으로 기억해 둔 필요가 있다

(88)은 자립명사 ‘필요’의 예문이다. 관형화 어미 ‘-르’이 결합하였고, 이를 관형화 어미 ‘-ㄴ’으로 바꾸면, 비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필요’는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바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위 혹은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정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관형화 어미 ‘-르’만이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관형화 어미 ‘-르’만 결합할 수 있는 자립명사가 있는 반면, 관형화 어미 ‘-ㄴ’만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1920년대 잡지에서 찾은 몇 가지 예문을 아래에서 보자.

- (89)ㄱ. 쌍방의 조사를 잘한 뒤에 처벌함이 좇치 안켓소 (소식⑧25.08.개벽62)  
인사를 간단히 말한 뒤에 자기의 방으로 인도하였다 (대담·좌담①  
26.11.별건곤1)
- ㄴ. 점령한 이후로 효益을 별로히 보지 못하얏스며 (논설①23.12.개벽42)  
盜跖이 山寨를 五陵山으로 옮긴 이후에 (문예기타①26.08.개벽72)
- ㄷ. 自己가 唯物論인 것을 自誇하는 이상에야 (논설②23.12.개벽42)  
아모 주책이 업는 사람이 안인 이상에야 (설문③28.12.별건곤16)

(89)는 각각 자립명사인 ‘뒤’, ‘이후’, ‘이상’의 예문이다. 이들은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난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사건은 이어지는 시간의 ‘과거’ 혹은 가까운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다. 즉, 그보다 앞선 미정은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실, 완결의 의미를 가진 관형화 어미 ‘-ㄴ’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 이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90) 언뜻이라도 본 기억이 잇는 듯한 얼굴이었다 (대담·좌담①26.11.별건곤1)  
\*언뜻이라도 불 기억이 잇는 듯한 얼굴이었다

(90)의 자립명사 ‘기억’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이다. '기억'이 말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과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볼' 기억이 아닌 '본' 기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4.2. '-르' 관형화 구성

'-르' 관형화 구성은 '-르' 관형화 어미와 내포문 명사가 결합한 구성이 명사구로 기능한다. '-르' 관형화 구성에서도 1920년대 잡지의 예문을 가지고 분석한다. 내포문 명사의 유형에 따라 자립명사 구문과 의존명사 구문으로 나누어 각각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의 예문을 살펴보고, 구성의 제약을 확인할 것이다.

### 4.2.1. 자립명사 구문

'-르' 관형화 구성의 자립명사 구문은 구성의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경우를 의미한다.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르' 관형화 구성의 자립명사 구문인 '-르' 관계화 구성과 '-르' 보문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르' 관계화 구성

'-르'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이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한 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빠져나오는 성분의 종류에 따라, 주어가 빠져나온 경우 목적어가 빠져나온 경우 부사어가 빠져나온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첫째, 주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91) 우리의 생활, 그것을 인도할 사람이 누구이나 (문예기타②23.12.개벽42)

-> [(사람이) 그것을 인도하다 + '-르'] 사람이 누구이나

(91)에서는 ‘사람’이 관형절에서 빠져나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립명사 ‘사람’은 관형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던 성분이다. ‘사람’이 빠져나온 문장은 관형화 어미 ‘-르’이 결합하여 관형화 구성을 이루고 있다. 1920년대 잡지의 예를 더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92) 宇宙를 振撼할 人物이 무더 잇는 것입니다 (논설③26.08.개벽72)

어린 자녀를 오는 압날의 사회를 주장할 국민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굳게 백혀 잇다 (설문⑥28.12.별건곤16)

(92)는 관형절 내 주어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를 이루는 구성이다. ‘인물’, ‘국민’이 관형절 내에서 빠져나와 동일지시를 형성한다.

둘째, 목적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관형절 내 목적어가 빠져나온다.

(93) 도저히 실행치 못할 평화조약을 정하야 (논설①23.12.개벽42)

->[도저히 (평화조약을) 실행치 못하다 + ‘-르’] 평화조약을 정하야

(93)은 자립명사 ‘평화조약’이 관형절의 내포문 명사로 나와 있는 예이다. ‘평화조약’은 관형절 내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던 것이지만, 동일지시 관계가 성립하기에 빠져나온 형태가 된다.

(94) 이것이 또한 極히 주의할 일이오. (논설②22.12.개벽30)

예술가의 할 의무가 잇다 하면 이것이다 (문예기타②23.12.개벽42)

간단하고도 씻지 못할 낙인을 面部에다 찍어서 (세태비평①26.08.개벽72)

(94)는 1920년대 잡지에서 추가로 확인한 목적어가 빠져나온 관계화 구성의 예이다. ‘일’, ‘의무’, ‘낙인’이라는 자립명사가 관형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다가 빠져나와 문장을 이루고 있다.

셋째, 부사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관형절 내 부사어가 내포문 명사로 빠져나온다.

(95) 오래 안저 잇슬 곳은 못 되닛가 (문예기타②28.12.별건곤16)

-> [(곳에) 오래 안저 잇다 + '-르'] 곳은 못 되니가

(95)의 '곳'은 장소를 의미하는 자립명사이다. 관형절 내에서 '-에', 즉 부사어에 해당하는 성분이었으나 '동일지시 관계'를 형성하여 빠져나온 것이다.

(96) 國家의 機關을 運轉시킬 人材를 고르자 함이오 (논설④21.12.개벽18)

조선사람이 살을 곳은 어대일가 (논설③26.08.개벽72)

내 몸을 의탁할 곳이 잇스리라는 자신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고·수기⑤28.12.별건곤16)

(96)은 1920년대 잡지에서 확인한 부사어가 빠져나온 '-르' 관계화 구성의 예문이다. 관형절 내에서 '-에', '-에서'와 같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던 자립명사 '인재', '곳'이 빠져나왔다.

이처럼, 1920년대 자립명사 구문에서 '-르'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던 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로 기능하며 동일지시 관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 (2) '-르' 보문화 구성

'-르' 보문화 구성은 내포문 명사로 빠져나오는 성분이 없어 관형절이 완전한 문장을 이루어 성립되는 것이다. 1920년대 '-르' 보문화 구성 중 자립명사 구문은 다음과 같다.

(97) 몸에 때를 지울 때에 엇지하여 (기행문①26.11.별건곤1)

-> [몸에 때를 지우다+ '-르'] 때에 엇지하여

(97)에서는 자립명사 '때'가 '몸에 때를 지울'이라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때, 관형절에는 '때'와 동일지시 관계를 형성하는 성분이 없다. 빠져나오는

성분 없이 온전한 관형절이 내포문 명사를 수식하는 보문화 구성이 되는 것이다.

- (98) 모험을 할 용기가 생기지 안하스리라고요 (회고·수기①22.12.개벽30)  
분포구역을 逐年 확장할 계획을 확립하였다 (회고·수기②22.12.개벽30)  
배당금을 어더 먹을 꿈을 가지고 (문예평론①26.08.개벽72)  
풍부한 생활을 할 욕망이 업기에 그러치 (설문①28.12.별건곤16)

(98)에서 자립명사 ‘용기’, ‘계획’, ‘꿈’, ‘욕망’은 관형절 내 문장성분과 동일지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략되는 성분 없이 온전한 관형절이 내포문 명사를 수식하도록 한다.

#### 4.2.2. 의존명사 구문

‘-르’ 관형화 구성의 의존명사 구문은 구성의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도 역시 ‘-르’ 관계화 구성과 ‘-르’ 보문화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르’ 관형화 구성의 의존명사 구문인 ‘-르’ 관계화 구성과 ‘-르’ 보문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르’ 관계화 구성

‘-르’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이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한 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의존명사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경우를 1920년대 잡지에서 살펴보자.

첫째, 주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 (99) 베너스를 사랑스러히 해방할 자가 누구냐 (논설⑥24.12.개벽54)  
-> [(자가) 베너스를 사랑스러히 해방하다+ ‘-르’] 자가 누구냐

(99)의 의존명사 ‘자’는 관형절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 성분이다. 의존명사

‘자’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고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

(100)ㄱ. 애초에 문제 될 것이 업섯던 것이다 (소식②24.12.개벽54)

실로 선풍궂° 전에서 氷塊를 안고 누은 것보다 나홀 것일세 (문예기타  
②26.08.개벽72)

ㄴ. 卽 此를 感受할 者가 無한 故로다. (논설①20.06.개벽1)

조각에 在하여서도 회화에 비할 者는 아니나 (논설⑥22.12.개벽30)

(100)은 관형절에서 의존명사인 주어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를 이룬 예문이다. (100ㄱ)에서 ‘것’, (100ㄴ)에서 ‘자(者)’를 확인할 수 있다. (100ㄱ)는 어떤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100ㄴ)는 ‘놈’ 혹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둘째, 목적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101) 땀을 흘리며 일을 하야도 먹을 것이 업고 (잡저②26.08.개벽72)

-> [(것을) 먹다+ ‘-르’] 것이 업고

(101)은 의존명사 ‘것’이 관형절 내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다 빠져나온 것이다. 이처럼 관형절 내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던 의존명사가 동일지시 관계로 빠져나온 예는 더 있다.

(102)ㄱ. 아즉까지는 더 개량할 것이 업서 뵈입니다 (설문②28.12.별건곤16)

바누질할 것이 밀녀노니 (설문④28.12.별건곤16)

ㄴ. 우리들의 取할 바가 아니라 (논설②21.12.개벽18)

청년남녀의 장래에 잇서서 크게 우려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문  
⑩ 28.12.별건곤16)

(102)는 목적어가 빠져나온 ‘-르’ 관계화 구성이다. (102ㄱ)는 의존명사 ‘것’이 사용된 예이고, (102ㄴ)는 의존명사 ‘바’가 쓰였다. 여기에서 의존명사들은 관형절 내에서 어떠한 대상, 즉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빠져나왔다.



셋째, 부사어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 (103) 여러분께 未安하기가 비할 데 업스나 (회고·수기②27.12.별건곤10)  
우희는 또 강용(剛勇)이 세계에 비할 데 업는 항우를 어터케나 사랑하고  
(문예기타⑮29.12.별건곤24)

(103)은 의존명사 ‘데’의 예이다. 의존명사 ‘데’가 관형질의 부사어로 있다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존명사인 부사어가 빠져나온 경우는 예가 많지 않아 찾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르’ 관계화 구성은 의존명사와 자립명사 모두 동일지시 관계를 형성하는 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로 기능하는 관계화 구성이 될 수 있다.

## (2) ‘-르’ 보문화 구성

1920년대 잡지에서 나타난 ‘-르’ 보문화 구성 중 내포문 명사로 의존명사를 취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04) 朝鮮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말을 할 리가 잇스며 (논설⑧21.12.개벽18)  
그런 이가 잇는 줄을 물을 리가 잇나 하는 (대담·좌담①26.11.별건곤1)  
아버지 말삼에 순종할 리가 잇습니까 (회고·수기⑤28.12.별건곤16)

(104)는 의존명사 ‘리’가 쓰인 예문이다. 의존명사 ‘리’는 주로 서술어 있다, 없다와 쓰이면서 ‘까닭, 이치’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관형화 어미 ‘-ㄴ’은 완전히 제약하여 관형화 어미 ‘-르’만 쓰이는 예 중 하나이다.

- (105) 30여 호의 상인이 파산할 지경에 잇다고 한다 (문예기타②23.12.개벽42)  
이제는 밥먹으란 말도 외우지 못할 지경이다 (기행문①29.06.삼천리1)

(105)는 의존명사 ‘지경’이 쓰인 예문으로, 온전한 관형질의 수식을 받는 ‘-르’

보문화 구성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지경’은 ‘경우나 형편, 정도’를 뜻한다.

- (106) 우리가 엇지 서로 사랑치 안이 할 줄이 잇스며 (문예기타③20.06.개벽1)  
殿堂이 되고 議場이 될 줄을 미리 알아라 (논설⑤ 21.12.개벽18)  
요보는 꺾를 부릴 줄을 모르고 (문예기타⑤26.11.별건곤1)

(106)은 의존명사 ‘줄’이 쓰인 예문이다. ‘줄’은 어떤 방법이나 셈속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관형절이 의존명사 ‘줄’을 수식하고 있다.

‘-르’ 보문화 구성은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 성분들과 동일지시 관계를 가지지 않아 생략된 것 없는 온전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다. 따라서 보문화 구성은 관형화 어미와 내포문 명사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4.2.3. ‘-르’ 관형화 구성의 제약 양상

‘-르’ 관형화 구성의 제약은 관형화 어미 ‘-르’에 관련이 있다. 시제어미, 높임법, 내포문 명사 결합에서 제약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잡지를 대상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자.

##### (1) 시제어미 결합

관형화 어미 ‘-르’은 기본적으로 미정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법‘Ø’과 완결법 ‘-었/았-’이 결합할 수 있고, 회상법과 미정법은 제약된다. 1920년대 잡지에서 찾아본 예는 다음과 같다.

- (107)ㄱ. 모험을 할 용기가 생기지 안하스리라고요 (회고·수기①22.12.개벽30)  
효과가 잇슬 것을 한 가지만 제의하기로 합니다 (설문①28.12.별건곤16)
- ㄴ. 發作이 잇섯슬 리가 만무하고 (세태비평①26.08.개벽72)  
눈치를 채이지 못하엿슬 리가 잇겿소 (회고·수기⑤28.12.별건곤16)

(107)은 1920년대 잡지에서 ‘-르’ 관형화 구성의 시제어미 결합 양상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107ㄱ)는 현실법 ‘∅’이 결합하였고, (107ㄴ)에서는 완결법 ‘-었/았-’이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결법의 경우 의존명사만 결합하고 있다.

## (2) 높임법 결합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 모두 결합할 수 있는 ‘-ㄴ’ 관형화 구성과는 달리, ‘-르’ 관형화 구성은 상대높임법 결합에 제약이 있다. 1920년대에서 나타난 주체높임법 예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 (108) 兄弟여 生의 잘 쓰지 못한 글을 읽으실 때에 特히 容愼하실 줄 압니다  
(회고·수기①21.12.개벽18)  
冬節에 치운때에 거처하실 朝鮮식 온돌방이나마 (소식⑥28.12.별건곤16)  
좃치 하시면서 등교하실 때가 만흐며 (소식⑦28.12.별건곤16)

(108)에서 확인할 수 있듯, 관형화 어미 ‘-르’에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만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을 실현할 수 있다.

## (3) 내포문 명사 결합

‘-르’ 관형화 구성은 ‘-ㄴ’ 관형화 구성과 같이 내포문 명사가 필요하다. 의존명사와 자립명사, 차례대로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을 살펴보겠다.

먼저, 의존명사에서 ‘-르’ 관형화 구성의 제약을 살펴보자. 의존명사에서 ‘-르’ 관형화 구성은 의미에 따라 결합이 제약되는 경우와 관형화 어미 ‘-르’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관형화 어미 ‘-르’를 제약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09)ㄱ. 엿지할 바를 모를 것일세 (문예기타②26.08.개벽72)

눈만 크게 떠도 갈 바를 모르는 女子들은 社會의 建設事業에 參加할  
이들이 못되는 것이다 (논설①29.11.삼천리3)

ㄴ. 혼 부대에는 새 곡식을 답을 수가 업습니다 (회고·수기②28.12.별건곤 16)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가 잇슬 것입니다 (설문①28.12.별건곤16)

ㄷ. 11월 1일 高麗青年會 토론할 적에 선금을 안내면 (소식⑥24.12.개벽54)  
一行은 떠나려 할 적에 은근히 내 역구리를 꼭 지르고 (기행문① 26.11.별건곤1)

(109)는 의미에 따라 결합이 제약될 수 있는 경우인 의존명사의 예이다. ‘바’, ‘수’, ‘적’이 있다. (109ㄱ)의 ‘바’는 일의 방법이나 방도를 의미할 때에 관형화 어미 ‘-ㄴ’만을 취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내용, 일, 기회, 형편’ 등을 의미할 때에는 관형화 어미 ‘-ㄴ’이 혼용된다. (109ㄴ)의 ‘수’는 ‘능력, 가능성’을 의미할 때에는 관형화 어미 ‘-ㄴ’을 사용하지만, ‘경우’의 의미를 지닌다면,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109ㄷ)의 ‘적’은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있는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가리키는 사건이나 때의 시간상 위치이다. 동작이 진행된다는 것은 아직 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미정’을 의미하고, 지나간 어떤 때는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ㄴ’ 관형화 구성에서 확인한 의존명사 ‘양’의 경우 원래 관형화 어미 ‘-ㄴ’ 또한 사용할 수 있으나, 1920년대 잡지에서는 예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행동을 취함’을 나타낼 때에는 관형화 어미 ‘-ㄴ’에 제약되지만, ‘의향 혹은 의도’<sup>53)</sup>를 뜻할 때 관형화 어미 ‘-ㄴ’을 취하게 된다.

한편, 관형화 어미 ‘-ㄴ’만 결합할 수 있는 의존명사의 경우도 있다. 1920년대 잡지에서 찾은 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110)ㄱ. 관찰사는 後殿에서 指揮할 따름이니 (문예기타②26.11.별건곤1)

정한 시간대로 출근 또는 罷歸할 따름입니다 (설문④28.12.별건곤16)

ㄴ. 이러한 말을 할 리가 잇스며 (논설⑧ 21.12.개벽18)

53) 1920년대 잡지에서는 ‘-ㄴ’ 관형화 구성의 ‘양’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예문을 따로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ㄱ. 그는 친구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을 양으로 조심조심 발끝으로 걸어 나갔다.

-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리는 만무하지요 (문예기타①26.08.개벽72)
- ㄷ. 동포가 지금은 그 리치를 깨달을만도 하건마는 (문예기타①25.08.개벽62)
- 樂理起說에 屬할만도 한것이외다 (논설④29.12.별건곤24)
- ㄹ. 너를 보내며 통곡할 뿐이다 (문예기타① 24.12.개벽54)
- 괴상하다는 생각을 더할 뿐이었다 (대담·좌담①26.11.별건곤1)
- ㄱ. 寧히 無限의 世界에 泣할 事를 希望하노라 (논설①20.06.개벽1)
- 蘇武의 송환할 事를 요구하니 (논설③26.11.별건곤1)
- ㅂ. 성급한 나로는 성장토록 보유할 여지가 업슴으로 (소식⑧25.08.개벽62)
- 인제는 벌써 의심할 여지가 업섯다 (문예기타③26.11.별건곤1)

(110)은 관형화 어미 ‘-ㄹ’만을 취하는 의존명사의 예이다. (110ㄱ)은 ‘따름’이 사용된 예이고, (110ㄴ)은 ‘리’가 쓰인 예이다. (110ㄷ)은 ‘만’, (110ㄹ)은 ‘뿐’이 사용되었으며, (110ㄱ)은 ‘사(事)’, (110ㅂ)은 ‘여지’의 예이다. 이들은 모두 관형화 어미 ‘-ㄴ’은 제약하고 관형화 어미 ‘-ㄹ’만 결합할 수 있다.

(110ㄱ)의 ‘따름’은 주로 ‘-을 따름이다’의 형태로 나타나 사용된다. ‘그 이상은 아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다. (110ㄴ)의 ‘리’는 주로 ‘없다, 있다’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까닭, 이치’의 뜻을 담고 있다. (110ㄷ)의 의존명사 ‘만’의 경우 의존명사 자체만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만-하다’처럼 보조형용사 형태로 굳어져 사용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110ㄹ)의 ‘뿐’, (110ㄱ)의 ‘사(事)’, (110ㅂ)의 ‘여지’의 경우 특수한 형태 없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자립명사에서 나타나는 제약을 확인해 보자. 여기에는 관형화 어미 ‘-ㄹ’만을 취하는 경우와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111) 朝鮮人은 日本震災에 救濟할 필요가 업다고 (소식④23.12.개벽42)
- 그런 예술은 製作할 필요가 업는 것이다 (논설⑥26.08.개벽72)
- 가정이 개조되어 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니 (설문⑥28.12.별건곤16)

(111)은 자립명사 ‘필요’의 예문이다. 자립명사 ‘필요’는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대신 관형화 어미 ‘-르’만을 취하여 문장을 성립한다. 관형화 어미 ‘-르’를 제약하는 자립명사의 예도 존재한다.

(112) 서로 떠날 뒤에는 彼此에 彼此的 들은 말을 信用치 못하고 (논설④21.12. 개벽18)

\*서로 떠날 뒤에는 彼此에 彼此的 들은 말을 信用치 못하고

(112)는 자립명사 ‘뒤’의 예이다. 위 예문에서 관형화 어미 ‘-르’를 사용하도록 바꾸면, 비문이 된다. 이와 비슷한 ‘이후’, ‘이상’, ‘다음’ 등의 자립명사의 경우에서도 관형화 어미 ‘-르’가 제약됨을 앞선 ‘-ㄴ’ 관형화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4.3. 관형화 구성의 종합적 검토

관형화 구성은 명사화 구성과는 달리 어미에 직접 조사가 붙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문 명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형절+내포문 명사’의 구성이 일반적이다. 관형화 구성을 나누는 분류 기준은 총 세 가지로 관형화 어미, 내포문 명사의 종류,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 사이의 동일지시 관계가 있다.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화 어미에 따라 ‘-ㄴ’ 관형화 구성과 ‘-르’ 관형화 구성으로 나누고, 이를 각 구성은 내포문 명사의 종류에 따라 자립명사 구문과 의존명사 구분으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내포문 명사와 관형절 사이의 동일지시 관계의 형성 여부에 따라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관형화 어미는 ‘-ㄴ’과 ‘-르’이다. 고대국어의 관형화 구성은 ‘-ㄴ’, ‘-르ㅎ’의 형태<sup>54)</sup>로 나타나며, 향가에서 ‘-이’의 형태가 드물게 확인되었다<sup>55)</sup>. 15세기 중세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관형화 어미 ‘-ㄴ’과 ‘-르’으로 나타

54) 홍종선, 『국어 문법사』, 아카넷, 2017, p. 293.

위 책에서 원래 ‘-ㄴ’, ‘-르ㅎ’ 어미는 원래 동명사형이었으나, 관형사적 기능으로도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5) 박진호,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 1998, p. 145.

나는데, 대신 관형화 어미 ‘-르’은 ‘-으’, ‘-음’의 형태<sup>56)</sup>로도 나타난다. 또한 관형화 어미는 이때부터 시제를 나타내는 역할도 가진다. ‘-(으)ㄴ’은 완결법을 나타내는 시제며, ‘-는 ’은 ‘-(으)ㄴ’과 현실법의 시제 ‘-는 -’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현실법을 나타내고, ‘-르’은 미정법을 나타낸다.<sup>57)</sup> 이러한 관형화 구성의 변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선어말어미 ‘-오/우-’의 관여, 주체·대상법이다.

주체·대상법은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 내 주어인 경우, 즉 주어가 빠져나온 관계화 구성에서 선어말어미 ‘-오/우-’가 제약받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객어인 목적어나 부사어일 경우에는 무조건 결합하는 것이 원칙인데, 15세기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러한 주체·대상법에 의한 선어말어미 ‘-오/우-’의 결합이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113)ㄱ. 아기나혼겨집들홀 (석상9:26)

ㄴ. 阿那律隨 | 父母나혼모물여희디아니호야셔 (월석17:59)

(113ㄱ)의 경우 아기를 ‘나혼’ 행위의 주어, ‘겨집’이 빠져나와 수식을 받는 경우로 선어말어미 ‘-오/우-’가 선접하지 않았으나, (113ㄴ)의 경우 부모가 나혼(남아준) 목적어, ‘몸’이 빠져나와 수식을 받는 경우이다. (113ㄱ)와 같은 ‘낳다’이지만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하여 ‘나혼’이 된다.

하지만, 16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규칙에 예외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선어말어미 ‘-오/우-’가 소멸되어 갔기 때문이다. 선어말어미 ‘-오/우-’의 소멸로 인해 주체·대상법에 균열이 생겼으며, 17세기에는 결국 주체·대상법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기에 이른다. 이후 18세기에서도 주체·대상법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관형화 구성의 변화 두 번째는 관형화 어미 형태의 변화이다. ‘-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관형화 어미의 경우, 관형화 어미가 수식하는 명사 없이 명사화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것은 15세기 국어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16세기 이후 급속도로

56) 권재일, 『한국어 문법사』, 도서출판박이정, 1998, p. 241.

57) 김현숙,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 74.

소멸하였다. 그 결과 ‘관형화 어미+내포문 명사’의 형태가 보편화 되었다. 또한 17세기인 근대국어부터는 ‘-읻’, ‘-읿’이 ‘-르’로 통일되며 현대국어의 관형화 어미 형태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세 번째 관형화 구성의 변화는 ‘객체높임’의 소멸이다. 16세기까지 존재했던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 즈, 습-’이 소멸하면서 높임법 적용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객체높임이 사라지기 시작한 17세기부터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만 관형화 구성에 적용되고, 객체높임이 적용되는 경우는 감소했다. 이러한 축소는 18세기까지 이어졌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사라지기에 이른다.

마지막 17세기 관형화 구성의 변화 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관형절+것’ 구조의 등장일 것이다. 앞선 명사화 구성에서 살펴본 ‘-ㄴ 것’ 명사화 구성이 그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또 다른 양상도 있다.

(114)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14)에서 ‘필요가 있는’은 의존명사 ‘것’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다. ‘것’과 함께 관형절이 서술어로 나타나 ‘필요가 있다.’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이처럼 의존명사 ‘것’이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형절과 함께 하나의 풀이말로 쓰이는 것<sup>58)</sup>을 ‘형식적 매김마디’라 한다.

이처럼, 관형화 구성의 경우 16세기부터 빠르게 선어말어미 ‘-오/우-’가 소멸하고, 관형화 어미가 단순화되는 등 변했다. 관형화 어미가 시제의 의미를 담는 등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온 부분도 있었다. 그 결과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현대국어와 같은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된다.

1920년대 잡지에서 확인한 20세기 초 관형화 구성 또한 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관형화 어미 ‘-ㄴ’과 ‘-르’를 기본으로 하며, 시제의 의미를 가진다.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만 결합 가능한 점, 주체·대상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이 앞서 확인한 이전 국어와 현대국어에 비교함에 있어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미 20세기 초에 관형화 구성은 현대국어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8) 허원욱, 「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한말연구』35, 한말연구학회, 2014. p. 310.



1920년대 잡지에서 확인한 관형화 구성의 특성은 형태와 제약,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관형화 구성의 유형이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화 어미에 따라 ‘-ㄴ’ 관형화 구성과 ‘-ㄹ’ 관형화 구성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것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특성에 따라 자립명사 구문과 의존명사 구문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들 구문은 관형절 내 성분과 내포문 명사의 동일지시 관계 형성 여부에 따라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나누게 된다. 동일지시 관계가 형성되어 관형절 내 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것을 ‘관계화 구성’이라고 하고, 동일지시 관계에 있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관형절이 내포문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를 가진 것이 바로 ‘보문화 구성’이다. 1920년대 잡지에서는 ‘-ㄴ’ 관형화 구성과 ‘-ㄹ’ 관형화 구성에서 내포문 명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계화’, ‘보문화’가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관형화 구성 제약 양상이다. 제약의 종류에는 시제어미 제약, 높임법 제약, 내포문 명사 제약 세 가지가 있다. 관형화 구성 제약은 관형절을 이루는 관형화 어미 ‘-ㄴ’과 ‘-ㄹ’에 관련이 있다.

시제어미는 현실법‘∅’, 완결법‘-었/았-’, 미정법‘-겠-’, 회상법‘-더-’가 있는데, 관형화 어미에 따라 결합되는 양상이 다르다. 먼저, ‘-ㄴ’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의 경우 관형화 어미 ‘-(으)ㄴ’은 현실법과 회상법이 결합하고, 관형화 어미 ‘-는’은 현실법만 결합한다. 결합이 가능한 경우 빼고는 제약하게 된다. ‘-ㄹ’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어미는 관형화 어미 ‘-ㄹ’이다. 관형화 어미 ‘-ㄹ’은 기본적으로 미정법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현실법과 완결법은 결합할 수 있지만 미정법과 회상법은 제약된다.

높임법은 선어말어미의 결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줍/습-’이 소멸된 이후로 선어말어미로 높임법 실현은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만 나타나는데, 관형화 어미 ‘-ㄴ’의 경우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높임법의 예는 찾을 수 없었다. 관형화 어미 ‘-ㄹ’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만이 결합된다.

관형화 구성에서 관형화 어미 ‘-는’만 결합하는 의존명사는 ‘대로’, ‘등’, ‘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수’의 경우 ‘능력, 가능성, 경우’의 의미를 지니는데, ‘경우’를

뜻하는 관형절에 붙을 때, 관형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고 ‘-는’만을 취하게 된다. 다음은 관형화 어미 ‘-(으)ㄴ’만 결합하는 경우로, ‘적’과 ‘지’ 등이 있다. 관형화 어미 ‘-(으)ㄴ’, ‘-는’ 모두 가능한 경우는 ‘양’, ‘바’, ‘듯이’, ‘척’, ‘체’, ‘채’ 등이 있는데, ‘듯이’, ‘바’, ‘양’은 관형화 어미 ‘-르’도 결합 가능한 의존명사이다.

다음으로 ‘-르’ 관형화 구성이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관형화 어미 ‘-ㄴ’과 ‘-르’이 가능한 경우는 의존명사 ‘바’, ‘수’, ‘적’ 등이 있다. ‘바’는 ‘방법이나 방도’를 의미할 때, ‘수’는 ‘능력, 가능성’을 의미할 때, ‘적’은 ‘동작이 진행됨’을 의미할 때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또한, 관형화 어미 ‘-르’만 가능한 경우에는 의존명사 ‘따름’, ‘리’, ‘만’, ‘뿐’, ‘사(事)’, ‘여지’ 등이 있다. 이들 의존명사는 대부분 ‘-르 만하다’, ‘-일 따름이다’ 등 관형화 어미 ‘-르’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 특수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은 관형화 구성에 결합하는 자립명사의 제약이다. 관형화 어미 ‘-르’에만 결합할 수 있는 자립명사는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필요’는 앞으로 ‘요구’되는 바를 의미하므로, 미정의 의미를 가진다. 관형화 어미 ‘-ㄴ’에만 결합할 수 있는 자립명사에는 ‘이후’, ‘뒤’, ‘이상’ 등이 있다. 이들은 지시하는 대상, 사건의 시점이 과거이거나 현재이다. 미정의 의미를 지닌 관형화 어미 ‘-르’에는 제약되는 것이다.

##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1920년대 잡지를 대상으로 1920년대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살펴본 명사구 내포문에 대한 내용을 종합한다.

먼저, 2장에서는 1920년대 잡지에서 명사구 내포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현대국어 관점에서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제약을 정리하고, 관형화 구성의 유형과 제약을 정리하였다. 또한 1920년대 잡지 목록을 파악하고 적합한 연구 대상을 특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1920년대 잡지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기능, 제약,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명사화 구성은 모두 주어를 비롯한 문장성분의 역할로 수행할 수 있는데, 모두 격조사 혹은 보조사의 결합을 통해 해당하는 문장성분으로 기능했다. 대신 ‘-기’ 명사화 구성의 경우 조사가 수의적으로 생략되거나, 어간 말음 ‘ㅎ’이나 ‘-하다’류 동사가 명사화 어미 ‘-기’의 ‘ㄱ’와 결합하여 ‘-키’가 되는 격음화 표기가 나타났다.

명사화 구성의 제약은 명사화 어미와 관형화 어미에 관련된 것으로, 상위문장 서술어 제약은 현대국어와 별 차이 없이 나타났다. 또한, 시제어미 결합 제약에서 ‘-(으)ㄴ’과 ‘-기’의 경우 회상법 ‘-더-’를 제외하고 모두 결합이 가능했다. 다만, 미정법 ‘-겠-’의 경우 예문이 드물게 나타났다. ‘-ㄴ 것’은 현실법만 결합하고 나머지는 제약된다. 또한, 높임법의 경우 ‘-(으)ㄴ’과 ‘-ㄴ 것’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만 결합할 수 있고, ‘-기’의 경우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도 결합할 수 있었다.

특히, 3.3장에서는 명사화 구성의 변천과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명사화 구성의 변화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선어말어미 ‘-오/우-’의 혼란이다. 15세기 명사화 구성은 주로 ‘-옵/움’에 의한 것을 기반으로 선어말어미 ‘-오/우-’와 규칙적으로 결합한 명사화 어미 ‘-(으)ㄴ’이 우세했다. 이때, ‘-기’는 명사화 어미보다는 파생 접미사로서 많이 사용되었고, ‘-디’는 정도성을 가진 감정표

시 동사 일부만 상위 서술어로 호응했다. 하지만, 16세기에 명사화 어미 ‘-(으)ㄴ’ 앞 선어말어미 ‘-오/우-’가 혼란을 겪으며 ‘-(으)ㄴ’이 덩달아 감소했다. 그 틈에서 ‘-기’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명사화 어미 ‘-기’만을 취하는 상위문장 서술어가 생겨났다. 두 번째는 ‘-ㄴ 것’ 명사화 구성의 등장이다. 17세기 ‘-(으)ㄴ’의 지속적인 감소, ‘-기’의 확장과 더불어 ‘-ㄴ 것’ 명사화 구성이 등장한다. ‘-ㄴ 것’은 관형절이지만, 명사적 용법에서도 활용되어, 분포가 꾸준히 늘어났다. 이때 명사화 어미 ‘-디’는 모두 ‘-기’에 합류되어 자취를 감췄다.

위의 양상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1920년대 이전의 국어는 분포에서 명사화 어미 ‘-(으)ㄴ’이 우세했다. 하지만, 1920년대 잡지의 명사화 구성은 25년을 기점으로 변화했다. ‘-(으)ㄴ’이 24년이 되기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결국 2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둔화된 것이다. 이에 ‘-ㄴ 것’은 ‘-(으)ㄴ’의 축소와 반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ㄴ 것’이 ‘-(으)ㄴ’을 대체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의 경우 ‘-(으)ㄴ’을 추월한 25년 이후 꾸준히 높은 분포를 보인다. 즉, ‘-ㄴ 것’은 ‘-(으)ㄴ’을 대체하여 분포가 높아지고, ‘-기’는 명사화 구성으로서 기능이 지속되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으)ㄴ’에 비해 ‘-기’와 ‘-ㄴ 것’이 많이 나타나는 분포 양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1920년대이다.

4장에서는 관형화 구성의 유형과 제약, 변천을 살펴보았다. 먼저, 1920년대 잡지에서도 관형화 구성의 유형은 관형화 어미, 내포문 명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계화와 보문화로 나타났다.

다음은 관형화 구성의 제약이다. 관형화 구성의 제약 중 시제어미 결합에서 ‘-(으)ㄴ’은 현실법과 회상법이 결합하고, 관형화 어미 ‘-는’은 현실법만 결합하며, 관형화 어미 ‘-르’는 현실법과 완결법은 결합할 수 있다. 대신 관형화 어미 ‘-르’에서 완결법은 의존명사일 때만 허용된다. 두 번째로, 높임법에서 관형화 어미 ‘-ㄴ’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옵-’이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높임법의 예는 세 잡지 내에서 찾기가 어려웠다. 관형화 어미 ‘-르’의 경우는 주체높임만이 결합 가능하다.

마지막은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이다. 먼저, 의존명사 ‘수’는 ‘경우’를 뜻할

때, 관형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고 관형화 어미 ‘-는’만을 취한다. 하지만 ‘능력, 가능성’을 의미할 때에는 관형화 어미 ‘-르’만을 취한다. ‘-(으)ㄴ’, ‘-는’ 모두 가능한 ‘양’의 경우 ‘어떤 모양이나 행동을 취하는 형태’일 때만 ‘-ㄴ’을 취한다. 만약 ‘의향 혹은 의도’의 의미라면 ‘-르’이 결합한다. 이 외에 ‘-르’만 결합하는 것은 의존명사 ‘뿐’, ‘리’, ‘따름’ 등이 있다. 다음은 자립명사의 경우이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관형화 어미 ‘-르’에만 결합할 수 있는 자립명사인 ‘필요’가 있다. 또한, 관형화 어미 ‘-ㄴ’에만 결합할 수 있는 자립명사에 ‘이후’, ‘뒤’, ‘이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관형화 구성의 변천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선어말어미 ‘-오/우-’의 약화로 인한 주체·대상법의 소멸이다. 16세기에 들어서 선어말어미 ‘-오/우-’의 소멸이 진행되어 주체·대상법이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18세기에 이르면, 주체·대상법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두 번째는 관형화 어미의 변화이다. 단독으로 관형화 구성으로 기능하던 ‘-웁’의 예가 16세기 소멸하였고, 17세기에는 관형화 어미 ‘-웁’, ‘-웁’이 ‘-르’로 통일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국어의 ‘관형화 어미+내포문 명사’의 형태가 보편화 되었다.

이러한 변천 속에서 1920년대 잡지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 또한, 관형화 어미 ‘-ㄴ’과 ‘-르’를 기본으로 하며,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만 결합 가능하며, 주체·대상법이 나타나지 않는 등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20세기 초에 관형화 구성은 현대국어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20년대 잡지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명사구 내포문이 1920년대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밝혔다. 특히 1920년대 잡지의 명사화 구성에서는 ‘-(으)ㄴ’이 ‘-ㄴ 것’으로 대체되고 ‘-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분포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양상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명사화 구성의 분포 양상을 더욱 정밀하게 정리하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명사구 내포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명사구 내포문에 대한 국어교육 자료를 풍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어교육의 학습 범위를 1920년대 명사구 내포문까지 넓힐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고영근,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제3판, 집문당, 2010.
- 권재일, 『20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권재일, 『한국어 문법사』, 도서출판박이정, 1998.
- 서은아, 『국어 명사형 어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3.
- 조용준 외 7, 전정예 엮음, 『선어말어미 ‘-오-’ 연구론』, 박이정, 2015.
- 편덕교, 『한국잡지 백년1』, 현암사, 2005.
- 편덕교, 『한국잡지 백년2』, 현암사, 2005.
- 편덕교, 『한국잡지 백년3』, 현암사, 2005.
- 홍종선, 『국어 문법사』, 아카넷, 2017.

### 2. 학술논문

- 고경민, 「관형화 구성에서의 -오-의 변천과 소멸」, 『시학과 언어학』 30, 시학과 언어학회, 2015, 5-28.
- 고영근, 「서술성어미와 관형사형어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2, 1-56.
- 권재일, 「20세기 초기 국어의 명사화 구문 연구」, 『한글』 229, 한글학회, 1995, 202-232.
- 김봉모, 「매김말의 겹침구조 연구」, 『국어국문학』 15,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50-76.

- 김봉모, 「매김말의 변형 연구」, 『동아논총』 16, 동아대학교, 1979, 61-86.
- 김봉모, 「국어 매김말 연구」, 『동아논총』 19, 동아대학교, 1982, 243-356.
- 김인택, 「이름마디와 그 유형」, 『우리말연구』 1, 우리말학회, 1991, 259-274.
- 김인택, 「한국어 내포절의 범주 설정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0, 한민족어문학회, 2002, 59-87.
- 남기심, 「국어 문법의 상(相) 과 시제(時制)」, 『한국학보』 4, 일지사, 1978, 164-175.
- 박기덕, 「한국어의 관형절에 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9, 한국의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983, 53-64.
- 박진호,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1998, 121-205.
- 서은아, 「현대 국어의 이름법 연구」,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5, 한말연구학회, 1996, 15-40.
- 서은아, 「풀이씨 이름법 ‘-음, -기’의 의미 특성」, 『인문과학연구』 5,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319-340.
- 서은아, 「풀이씨 이름법 ‘-음, -기’의 풀이말 제약」, 『한말연구』 4, 한말연구학회, 1998, 147-177.
- 서은아, 「15·16세기 국어의 풀이씨 이름법 ‘-ㅁ, -기’ 연구」, 『겨레어문학』 23, 겨레어문학회, 1999, 389-418.
- 서은아, 「17·18세기 국어의 풀이씨 이름법 ‘-ㅁ,-기’연구」, 『겨레어문학』 25, 겨레어문학회, 2000, 125-146.
- 서은아, 「19·20세기 초 국어의 풀이씨 이름씨 씨끝 ‘-ㅁ,-기’ 연구」, 『한말연구』 8, 한말연구학회, 2001, 75-105.
- 서은아, 「풀이씨 이름법 씨끝 ‘-기’의 통시적 연구—토씨 생략을 중심으로—」, 『한글』 256, 한글학회, 2002, 99-128.
- 서은아, 「풀이씨 이름법 씨끝 ‘-ㅁ, -기’의 변화 양상」, 『한말연구』 10, 한말연구학회, 2002, 83-114.
- 양정호, 「명사형어미 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57-80.

- 우형식, 「국어의 관형절과 핵심명사」, 『원우론집』 15,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143-189.
- 지춘수, 「15세기 국어의 내포문 연구」, 『인문과학연구』 14,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1-36.
- 채완,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1979, 95-107.
- 최대회, 「17세기 이름마디 체계의 형성 과정」, 『한말연구』 26, 한말연구학회, 2010, 209-237.
- 최대회, 「18세기 국어의 ‘-ㅁ(음), -기’ 이름마디 연구」,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431-462.
- 최대회, 「“것” 구조의 문법화」, 『겨레어문학』 48, 겨레어문학회, 2012, 401-430.
- 최대회, 「19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연구」, 『인문과학연구』 3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201-221.
- 최대회, 「동화 텍스트에 나타난 이름마디 연구」, 『동화와 번역』 26,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341-364.
- 최대회, 「국어의 이름마디 변천 연구」, 『한말연구』 34, 한말연구학회, 2014, 317-346.
- 최대회, 「신소설에 나타난 이름마디 연구」, 『겨레어문학』 52, 겨레어문학회, 2014, 305-329.
- 최대회,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과의 상관성」, 『국제어문』 62, 국제어문학회, 2014, 101-123.
- 최대회, 「관형화 구성에서의 ‘-오-’의 실현」, 『인문과학연구』 4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289-312.
- 허원욱, 「15세기 국어의 매김마디 연구」, 『목원국어국문학』 2,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11-40.
- 허원욱, 「현대 국어의 매김마디 연구」, 『한말연구』 1, 한말연구학회, 1995, 243-259.
- 허원욱, 「16세기 국어의 매김마디 연구」, 『한말연구』 3, 한말연구학회, 1997, 173-196.



- 허원욱, 「17세기 이름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임자말로 기능-」,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2004, 295-318.
- 허원욱, 「17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한말연구』 17, 한말연구학회, 2005, 367-390.
- 허원욱, 「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한말연구』 35, 한말연구학회, 2014, 297-316.
- 허원욱, 「19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한말연구』 45, 한말연구학회, 2017, 251-268.
- 호정은, 「개화기 국어의 명사화 연구 -독립신문 전산 자료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83-101.
- 홍양추, 「국어 매김말의 구조」, 『국어국문학』 2,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69-92.
- 홍중선, 「명사화 어미 ‘-음’ 과 ‘-기」, 『언어』 2, 한국언어학회, 1983, 241-272.
- 홍중선, 「명사화 어미의 변천」,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1983, 31-52.
- 홍중선, 「명사의 기능: 그 기원적 성격과 변천」, 『어문논집』 24-25, 안암어문학회, 1985, 519-533.
- 홍중선, 「근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1997, 143-190.
- 홍중선, 「국어학의 이해 명사화」, 『새국어생활』 14, 국립국어연구원, 2004, 167-185.
- 홍중선, 「20세기 국어 문법의 통시적 변화」,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35-61.

### 3. 학위 논문

- 김인영, 「국어 복합문 체계에 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일환, 「국어 명사형 어미의 계량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현숙,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박형진,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서은아, 「현대 국어 풀이씨의 이름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윤이운, 「‘-ㄴ/르 것’ 구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전성희, 「개화기 국어의 명사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명아, 「개화기국어와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 특성 비교」,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수현, 「『노걸대』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의 변화」,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6.
- 최대회,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최수일, 「1920년대 문학과 『開闢』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허원욱, 「15세기 국어의 이름마디와 매김마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4. 사이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잡지자료”, 최종 접속 2023년 2월 28일,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Abstract>

A Study on NP Embedded Sentence in  
1920s magazine

Ko Na-kyung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Dae He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noun phrase embedded sentences from a synchronic perspective. The focus of this study will be on three magazines from the 1920s: 『Gaebaek』, 『Byeolgungon』, and 『Samcheonri』. Furthermore,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noun phrase embedded sentences before and after the 1920s. The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function, restriction, distribution, and diachronic changes of nominalization compositions in the 1920s magazines. Firstly, in terms of function, nominalization compositions that appeared in the 1920s with nominalization endings such as '-(으)ㄴ', '-기', or '-ㄴ 것' structures functioned as sentence components when combined with a postposition. In this case, in '-기' nominalization compositions, the postposition is omitted from the subject and object, so they can function as sentence components. The nominalizing ending '-기' was used as a shortened '-키' when the stem endings 'ㅎ' or '-하다' were combined. Next, there are constraints on nominalization composition. We have identified, in nominalization compositions, the predicate of a superior sentence, as well as the combination of tense

endings, honorifics. However, in the case of the '-ㄴ 것' nominalization composition, we did not find the predicate combination of a superior sentence.

Then, we analyzed the distribution and diachronic changes of nominalization composition in the 1920s. Originally, the distribution of nominalization compositions was dominated by the nominalization ending '-(으)ㄴ', which regularly combines with the prefinal ending '-오/우-'. However, as the use of the prefinal ending '-오/우-' disappeared in the 16th century, '-기' became the more commonly used form. In the 17th century, the '-ㄴ 것' structure emerged as a nominalization composition, which further reduced the use of '-(으)ㄴ'. This pattern of change began in 1925 when the distribution of '-기' and '-ㄴ 것' surpassed that of '-(으)ㄴ'. At this time, the usage of '-기' was similarly frequent, while the usage of '-ㄴ 것' was inversely proportional, increasing as the usage of '-(으)ㄴ' decreased. This allows we can see that '-ㄴ 것' has replaced '-(으)ㄴ' and expanded its distribution.

Next, we examined the functions, restrictions, and diachronic changes of adnominal composition in the 1920s magazines. There are two types of adnominal composition: relativisation composition and complementation composition. The type of composition depen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nominal clause and the head noun. Similarly, relativisation composition and complementation composition also appeared in magazines in the 1920s. This is true regardless of the type of adnominal endings or head nouns with which they combine. Next, constraints related to the adnominal ending were identified, including the combination of tense ending, honorifics, and head nouns. Lastly, the adnominal compositions show changes such as the disappearance of the subject-object method, the use of adnominal endings '-ㄴ' or '-ㄹ', and the universalization of the 'adnominal clause + head noun' form. The adnominal composition of the 1920s also exhibited the same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a 1920s adnominal

composition has the appearance of a modern Korean adnominal composition.

Key words: 1920s, magazine, nominalization composition, adnominal composition, morphological features, syntactic features